

예장(웨신) 총회·노회 임원 단합대회

교단발전에 결속을 다짐한 화합의 장으로 큰 성과 나타나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총회 제94회기 총회·노회임원 단합대회가 11월 9일~10일까지 충남 보령 대천 한화리조트에서 가졌다. 전국에서 120 여명의 노회장과 임원들이 참석한 단합대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주제아래 교단발전에 결속을 다짐한 화합의 장이 되었다.

9일 오후 4시 부총회장 이흥규 목사 사회로 1부 예배를 시작 경기노회장 송주창 목사의 기도와 강원노회장 박영남 목사가 성경 집안 11장 1-11절 말씀을 봉독하고, 예수사망 선교예수단의 찬양과 위십이 있었다. 총회장 성홍경 목사는 “하나님이 합한 사람”이란 제하의 말씀을 통해 전국에서 참석한 각 노회장, 임원들을 환영하고 격려했다. 또 총회발전과 성장을 위하여 화합하고 주의 일에 힘쓰는 단합대회가 되기를 주문했다.

이어 특별기도에 1.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강동노회장 정구남 목사, 2. 총회 발전, 화합, 성장을 위하여 동서노회장 이병만 목사, 3. 노회와



지교회를 위하여 남부노회장 조광표 목사, 4. 신학교를 위하여 남서울노회장 장한국 목사, 등이 나섰다. 총무 신언창 목사가 광고를, 중경총회장 정창갑 목사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이날 웨신총회는 전교의 밤 시간에 공천위원회와 실행위원회가 모임을 가졌다. 또한 중앙노

회 정일량 목사 진행으로 노회별 임원소개와 인사가 있었으며, 각 노회 부노회장, 서기·부서기, 회의록서기 부회의록서기, 회계·부회계 등이 모여 분임토의를 갖고 각 팀장이 핵심된 내용을 발표하자 분임토의로 인해 총회발전에 좋은 계기를 제공했다며 총회원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한편 노회별 불령대회와 탁구대회가 열려 각 노회를 대표하는 선수들의 열띤 게임으로 탁구에서 1등 한서노회 이영종 목사, 2등 동서노회 이병만 목사, 3등 한서노회 하종우 목사, 불령에 1등 경기노회 송주창 목사, 2등 경인노회 김승년 목사, 3등 수도노회 김충택 목사 등이 우승을 안았으며, 총회장 성홍경 목사는 선전을 다한 선수들을 격려하고 상금을 전달했다.

웨신총회 임원·노회 임원 단합대회 마지막 날 아침 서기 김충택 목사 사회로 폐회예배에서 기도에 경인노회장 김승년 목사, 성경봉독 한서노회장 하종우 목사, 중경노회장 임철환 목사가 “형제의 연합”이란 제하의 말씀을 전하고, 중경총회장 김용진 목사 축도로 예배와 단합대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는 교단 대결로 임박

예정합동, 통합 총회장이 선거대책본부장 맡아...교단 자존심 걸어

오는 12월 29일 치러질 제16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선거가 교단 대결로 치닫고 있어 선거 결과 이후 후유증이 클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교단 차원의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교단은 예정합동. 지난 10월 27일 예정합동 총회 임원회는 모임을 갖고 후보로 나선 홍재철 목사를 지원하기 위해 총회장 서정배 목사를 선거대책위원장으로, 부위원장에 부총회장 김삼봉 목사와 박정하 장로를 추대했다. 또한 선거실무대책위원회는 후보 중심으로 꾸려 이번 대표회장 선거에 임하기로 했다.

예정합동은 연속 세 차례나 대표회장을 배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만큼은 반드시 승리를 거둬 한기총 최대 교단의 위상을 회복하겠다는 각오로 뛰고 있다. 투표권을 가진 실행위원도 25명으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승리를 장담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홍 목사는 주일시원 철계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교단 총회장을 지내지 않았다는 것이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홍재철 목사는 “3500여 교회에 소속된 예정합동 서북협의



예정합동 이광선 목사

예정합동 홍재철 목사

예정합동 한영훈 목사

회 회장을 맡고 있어서 중소교단 총회장 이상의 정치력과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정합동과 함께 한기총의 두 쌍두마차를 형성하고 있는 예정통합총회는 지난 20일 후보로 나선 이광선 목사를 지원하기 위해 선거대책본부를 결성했다. 지용수 총회장이 본부장을 맡았고, 공동선거대책본부장에 김삼환 목사, 안영로 목사 등 두 중경총회장을 선임하고 지난해 패배를 거울삼아 이번만큼은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선거에서 엄선형 목사에게 패배한 이광선 목사는 이번에는 당선 가능성을 자신하고 있다. 특히 투표권을 가진 실행위원 22명을 보

유하고 있는 예정통합은 이번에도 패배한다면 교단의 위상에 치명상을 줄 것이라며 한기총 소속 교단과 연결고리가 있는 인사들을 통해 실행위원들을 접촉하고 있다. 엄 목사는 사학법 원전폐지와 사학진흥법 제정으로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이광선 목사는 WCC 논란이 대두되고 있는 것을 부담으로 여기고 있다. 이목사는 뉴스파워와 인터뷰에서는 “WCC 신학은 반대하지만, WCC 한국총회 유지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보수 성향의 한기총 실행위원들의 표심을 훑고 있다.

예정한영총회 추천을 받은 한영훈 목사는 한영신학대학교 총장으로 행정력과 기획력을 갖

춘 후보라는 점을 내세우며 적극 뛰고 있다. 한영훈 목사는 대학 총장답게 한반도가독교정책연구소를 설립해 대정부, 대사회, 대북, 국제관계에서의 분명한 정책으로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예정한영총회 역시 강진문 총회장과 교단 및 대학 산하 기관들을 중심으로 한목사의 당선을 위해 적극 뛰고 있다.

한영훈 목사는 교단 규모가 200여 교회로 표를 가진 실행위원이 2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이 부담이다. 그러나 한영훈 목사는 “예정한영은 한기총 정립 교단이고, 저도 한기총의 중책을 맡아 일해 왔다.”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한 목사는 특히 “지난 2년간 실행위원들을 개인적으로 두세 번씩 만났다.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모 후보는 “이번에 나온 세 후보는 모두 아킬레스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네거티브선거운동을 해서 안된다.”고 말했다. 선거운동이 막바지에 이르른 상황이 달라질지 모르겠으나, 아직까지는 세 후보 모두 네거티브 전략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총회장을 선거운동의 전면에 내세우면서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가 치러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의 열기는 어느 때보다 후끈 달아올라 있다. “무조건 이기고 보자”는 말도 들린다. 때문에 투표권을 가진 실행위원들의 냉철한 판단력과 책임감이 요구된다.

창간사

정기남 목사
지저스타임즈 발행인

창간 두 돌과 JTN방송 5주년을 기념하면서...

지저스타임즈(Jesus Times)가 한국교계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어느덧 창간 2주년을 맞았습니다. 앞서 JTN방송(WWW.JTNTV.KR)은 개국 5주년을 맞은 뜻 깊은 달이기도 합니다. 웨신총회를 비롯 한국교계의 물심양면으로 사랑받는 JTN방송의 높은 시청률과 본지의 구독신청은 놀랍도록 그 부수가 더해가고 있으며, 해외 9개국 지사와 국내 9개 지사를 두고 혼신을 다해 뛰고 있습니다.

100개사가 넘는 기독교 신문 방송 언론이, 시대적 사명이 크다고 봅니다.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가 일부 지도자들의 타락과 네거티브로 신뢰와 도덕이 무너진 이때 우리 언론이 지켜내고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에 대해 많은 성찰과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자들의 귀와 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언론, 알 권리를 바로 전달하는 언론, 기독교를 대변하는 역할이 내게 있다는 것을 굳게 결심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 대변자로서의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저스타임즈와 JTN방송은 기자들과 호흡을 같이하여 한국교회의 부흥과 갱신을 위하여 땀을 흘리고 달려 나갈 것입니다.

흔하지 않은 일이 쉬어 썩듯이 부흥의 빛을 잃은 교회는 정체되고 만다는 일념으로 그 어떤 타협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오로지 바른 소리만을 낼 수 있는 이 시대의 높이 평가 받을 수 있는 문서선교 정론지로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두 무릎을 꿇어 기도하며 전진할 것입니다.

밤마다 창밖을 내다보면 심자가 불야성을 이루고 있지만, 과연 영혼구원을 위하여 외치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삼일주의 교회는 생명의 소리가 없습니다. 또한 언론은 많으나 기독교를 대변하는 언론 방송이 많지 않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지저스타임즈와 JTN방송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반드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명의 있는 문서선교, 정론지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학교부흥 프로젝트. 초딩 3~6학년 영어 (가장 쉽게, 가장 빠르게, 가장 저렴하게) 완전정복 / 지부설립소개, 강사교육, 교육원설립안내

원더풀 잉글리쉬 아카데미 단기세미나

초대여권

원더풀 잉글리쉬는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으로 초등학교 영어 교과서 중심의 회화교육입니다. 이교육의 특징은 어렵게 느껴졌던 영어 회화가 쉽게, 빠르게 말할 수 능력을 키워 주는 교육으로 확실한 교회학교의 부흥을 가능케 할 것입니다.

본 세미나를 주최한 사단법인 무릎사랑은 아동복지 범인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복지사역을 실천하는 단체로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수행기관(행복한도시락, 찾아가는 음악교실) 청소년공부방 사업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무릎사랑은 2009년 ‘어린이회화 능력검정시험’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자격증을 얻정한 심사를 거쳐 발급하고 있습니다.

본 세미나에서 교회학교부흥프로젝트로 전도 모델을 제시하고, 영어교육의 현실과 교회학교 잉글리쉬아카데미 교육원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세미나를 준비하여 복화지 및 영어교육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을 초대하오니 들어보시고 좋은 결과 기대해 봅시다. 한국교회학교살리기운동본부는 교회학교 부흥을 위하여 헌신된 단체로 각지역마다 교사세미나, 교사대학 등을 지원해왔으며 어린이부흥회 강사를 파송하여 한국교회 미래를 책임지게 할 어린이들에게 확실한 영어를 정복할 수 있는 너무 쉽고 빠르게, 확실한 영어교육을 통하여 한국교회학교의 확실한 부흥을 기대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면서 관심 있는 여러분들을 초대 합니다.

(사)무릎사랑 이사장 김복식 목사 · 한국교회학교살리기운동본부 대표 조정환 목사

성공적인 학습모델 제시

저자의 교회에서 매주 30분씩교육을 실시한 결과 영어 말하기 경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며 확실한 영어회화교육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원더풀잉글리쉬 교육이 많은이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영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2010년 아동영어회화 접수시험실시

말씀 공부방과 전도프로젝트 안내

* 성경 공부방 자문장개(기과 과 숙주)
* 전도신문 제작 및 활용
* 복음전도지 활용
* 교회학교 공부방 지역아동센터 교육프로그램 소개

사이버 학점은행 수강생 모집

가장 쉽고, 빠르고, 저렴하게!!
신념은 축복입니다.(나이불이도 공부할 수 있음)

• 고졸2년 과정 - 4학기 • 대졸1년 과정 - 4학기
• 문의전화 : 017-211-9125
• http://ica91.co.kr

지부 신청안내

* 각지역별 어린이영어회화능력검정시험주관사 부여
* 교육원설립 및 관리 지도
* 원더풀잉글리쉬 교육원 운영
* 평생교육원 설립지원

강의 시간 계획

1강 : 전도프로젝트 소개 / 강사 주영광
2강 : 교회학교 부흥 가능한가? / 강사 조정환
3강 : 원더풀 잉글리쉬 시연 / 강사 : 김근모
원더풀 잉글리쉬 시연 / 강사 : 이해남

* 타지역 세미나 신청 접수 합니다. 017-211-9125 (조정환)

강사 교육 안내

* 초등학교 방과 후 교사활동
* 지역아동센터프로그램 교사
* 원더풀잉글리쉬 교육원 강사
특전:아동영어회화능력검정사자격증발급

교육원 신청 안내

* 대상 : 각 지역 교회 및 교육원, 영어학원
* 자격 : 영어교육에 관심 있는 자
* 특전 : 평생교육원, 학원 설립지원
과외교습소 설립지원
* 확실한 운영지원 및 교육

강사 사진

조 정 환

김 복 식

이 현 석

김 근 모

이 해 남

주 영 광

◆ 주최 : 사단법인 무릎사랑 /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431-9 신창프라자 306호

◆ 주관 : 한국교회학교살리기운동본부 / http://kcsrme.com

◆ 후원 : 이미지성경교육원 (www.ib365.com.해피비전출판사) / 국제사이버아카데미평생교육원 (http://ica91.co.kr) / 경기사회교육원

대표전화 1688-5605

대표전화 1670-9001

대표팩스 : 0303-0234-5339, 031-239-7706

참가비 전 등록시 20,000원 현장 등록시 30,000원

은행 : 농협 170794-52-222243(예금주: 조정환)

제1차 서울경기지역세미나

• 일시 : 12월3일(목) 1시~5시
• 장소 : 기독교100주년기념관
• 위치 : 종로5가
• 전화 : 02-741-4361

제2차 경기수원지역세미나

• 일시 : 12월9일(수) 1시~5시
• 장소 : 수원해브론교회
• 위치 : 권선7동 제이로드빌딩
• 전화 : 031-226-9001

제3차 대전지역세미나

• 일시 : 12월10일(목) 1시~5시
• 장소 : 기독교연합봉사회
• 위치 : 대전시중구 문화동 1-13
• 전화 : 042-254-2323

제4차 인천지역세미나

• 일시 : 12월14일(월) 1시~5시
• 장소 : 성민교회
• 위치 : 시흥시 장곡동 553-1
• 전화 : 031-318-0687

제5차 전북지역세미나

• 일시 : 12월15일(화) 1시~5시
• 장소 : 전주동부교회
• 위치 : 전주시 덕진구 잔뜩동
• 전화 : 063-275-7760-1

제6차 전남지역세미나

• 일시 : 12월17일(목) 1시~5시
• 장소 : 광주신일교회
• 위치 : 광주북구 운암동 936-1
• 전화 : 062-523 9419

제7차 경남지역세미나

• 일시 : 12월18일(금) 1시~5시
• 장소 : 부산초대교회
• 위치 : 사상구 폐법동226-8
• 전화 : 051-328 7400

(재)한국찬송가공회
이사장·총무 이취임예배드려...

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는 11월 11일 오전 11시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소강당에서 이사장·총무 이·취임식 감사예배를 드려왔다.

서기이사 신진목 목사 사회로 진행된 1부 예배에 기도예 회계이사 안종현 장로, 성경봉독에 회계이사 이홍업 목사, “호흡이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제하의 말씀을 서기행 목사가 전하고 지택 목사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공동이사장 이광선 목사 사회로 제2부 이·취임식이 시작되어 공동이사장 이광선 목사는 인사말씀을 전하고 이사진을 소개했다.

서기이사 박용삼 목사는 취임하는 이사장 서정배 목사와 총무취임에 박노원 목사, 송정현 장로가 소개됐다. 아울러 이사장 서정배 목사의 취임인사가 있었다. 한국 개신교 전체와 약 1200만 성도들에게 찬송가를 보급하는데 헌신을 다할 것을 약속하면서 앞으로 법인 찬송가 공회는 이광선 공동이사장과 서정배 공동이사장, 모든 이사들이 하나가 되어 지난날의 아쉬운 점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여 보다 나은 합의점을 도출해 나갈 것을 천명하면서 먼저 질 좋은 찬송가를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하며, 투명하게 재정을 집행할 것과 교단



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합기관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열린 행정을 통하여 한국 교회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아울러 많은 기도도 지도편달을 부탁했다.

이어 감사패증정과 이임사가 진행되고 격려사와 축사, 축가 순으로 이어졌으며, 예장(통합)증경총회장 유의웅 목사의 만찬을 위한 축복기도로 마쳤다.

미래목회포럼

대표 김인환 목사, 이사장 지용수 목사 취임

한민족 대통합을 주도하는 정신운동을 펼쳐나갈 터



미래목회포럼은 지난 11월 13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5가 한국기독교연합회관 17층 대강당에서 1부 대표, 이사장 및 임원 취임 감사예배를 드렸으며, 2부 한국교회의 미래를 여는 정책토론회를 오후 3시30분까지 가졌다.

이상대 목사(포럼 집행위원장)사회로 사도신경을 한 후 윤성진 목사(포럼 지역대표의 기도, 고홍식 목사(포럼 교단회장)가 성경 열왕기하 2장 1~3절을 봉독하고, 성은 김리교회 성가대의 찬양이 있었다. “지금온 엘리사가 필요한 때”라는 제하의 말씀을 길자연 목사(포럼 고문)가 선포했다.

김 목사는 한국교회 120년을 돌이켜 보면 한국교회가 화합하고 일치해 있었을 때에는 국가와 한국교회가 부흥과 평화가 있었지만 분열과 갈등이 한국교회에 얼룩졌을 때에는 교회와 국가엔 불행과 시비가 끊이지 않는 사건이 연속이었다면서 오늘날 시급한 것은 화합과 일치를 강조하고, 미래목회포럼은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미래사회, 미래교회를 열어가는 방향을 제시하며 한국교회를 재생시키고 발전시키는 보배로운 기관이 될 것을 주문하고 아울러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인 미래목회포럼이 한국교회의 화합

과 일치의 지리가 되고,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대표적 연합기관으로 성장하기를 기원했다.

이어 이효삼 목사(사무총장)는 포럼 취임자 소개가 있었으며, 길자연 목사(포럼 고문)가 취임패를 전달과 대표 김인환 목사의 인사가 있었다.

또한 김 대표는 임원들에게 위촉패를 전달했다. 연이어 박진 의원(국회의원)과 김승동 목사(한국교회연회대표)가 축사를, 김진호 감독(도봉교회 원로)의 격려사에 이어 소인용 목사(한목림대표회장) 축도로 마쳤다.

대표 김인환 목사는 향후 5년, 또는 10년 후 한국사회와 한국교회를 생각하며 미래에 대안과 희망을 주는 앞선 포럼으로 만들어 가자며, 2010년 미래목회포럼이 전개할 핵심 사업들은 먼저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영적각성을 통하여 철저한 자정의 노력을 기울이는데 있음을 피력했다.

또 교회의 일치(Unity)와 성결(Purity)은 어떤 문제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과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심자기를 높이 들고 교회의 일치운동을 실천하여 민족과 사회 앞에서 먼저 그 본(Model)이 될 것라고 했다.

2010년도는 미래목회포럼이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을 약속하고 거룩한 사역에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함께 헌신하며 참여해 달라고 부탁했다.

사설

교회는 사회법과의 충돌에서 승리하여야!

지난 11월 26일 헌법 재판소는 “혼인빙자간음죄”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적어도 2009년 11월 26일 이전까지만 해도 “혼인빙자간음죄”는 죄로 구분되었는데 이제는 아무 죄가 없다는 무용지물의 법이라고 선고한 것이다.

물론 현재의 결정에 대해 왈가왈부하려는 것이 아니다. 개인이 갖는 성(性)적 결정권을 존중해야하고 개인 간의 도덕적 문제까지 국가의 공권력이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일 것이다. 또한 이 법의 폐지가 남성만 처벌한다는 조항이었으므로 피해자를 부녀자로 한정하는 것은 양성평등에 어긋난다는 것도 작용하였을 것이다. 아마 그래서 여성부가 환영의 뜻을 표한 것인지도 모른다.

한편으로 ‘간음죄’는 그대로 유지되었는데 그것은 남녀를 모두 처벌할 근거가 있어 양성평등을 해치지 않고 또 가정을 지켜 주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내세우며 존치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 법도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세상은 변하고 있다. 그리고 가속도를 붙여 있다. 옛날에는 죄라고 말하던 것을 지금은 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이런 세월의 흐름을 한 세대에 다 느끼고 가는 사람들은 정신이 아찔하고 혼미하여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더욱 교회를 돌아본다. 이제 믿을 데는 교회밖에 없다. 아직도 교회는 제7계명이 살아있고 여전히 “간음하지 말라”고 명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세상의 윤리가 어떻게 변해가든 교회는 하나님의 법을 떠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사회법과 교회법의 충돌을 본다. 세상법은 죄가 아니라고 최고의 권위를 가진 헌법재판소가 말한 다 해도 교회는 그것을 죄라고 외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 충돌에서 교회는 승리하여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성도들이 세상법의 위로를 받지 않도록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 버린 윤리를 교회가 감당해야 할 시대 온 것이다. 점점 잊혀져가고 무뎌져 가는 세대속에서 신앙양성이 살아남기 위해 이제 주일 예배 사에 심계명을 교육하는 순서를 자주 가져야 하지 않을까? 교회의 막중한 사명을 다시 일깨운다.

이종윤 한장총 신임 대표회장 “성경적 연합 이루겠다”



27회기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신구 임원들이 나와서 맞잡고 한국장로교회의 연합을 다짐했다. 우측5번째 이종윤 대표회장, 4번째는 양병희 상임회장

강조했다. 대표회장 이종윤 목사는 “사분오열된 한국장로교회가 ‘성경적 개혁주의신학’에 입각한 교회로 거듭나서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일을 위해 헌신할 것이고, 한국교회의 60% 이상을 점하는 중심교회로서의 위상을 더욱 높여 믿음답게 연합과 일치의 모습을 보이도록 힘쓰겠다”고 뜻을 밝혔다.

또한 양병희 목사(영안교회)가 총회에서 상임회장으로 선출됐다. 예장백석(구 예장합성)총회장을 지낸 바 있는 양 목사는 한기총선교위원장, 통일선교대학 이사장, 동북아한민족협의회 대표회장, 대한성서교회 이사 등을

역임했다. 양 상임회장은 “대표회장을 잘 도와 ‘2012년 장로교 100주년’을 바라보며 한국장로교회의 연합과 일치는 물론 ‘2015년 광복 70주년’을 바라보며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준비하는 일에 앞장서겠다”며 다짐했다.

앞으로 한장총은 지역별 네트워크를 통해 역량을 결집해 장로교는 물론 한국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연합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며, 금년에 처음 선포된 ‘장로교의 날(7월 10일)’을 매년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총의 임원은 합동(서정배) 고신(김현배) 기장(김현배) 대신(김명규) 합신(임석영) 총회장을 공동회장으로, 임종수 목사(고신)를 총무로, 최중하 목사(대신)를 서기로, 남승찬 장로(합동)가 회계를 맡았다.



(주)금호상조

1566-4428

“이제 경조사는 웰빙토탈서비스에 맡겨 주세요”

운구에서 장지까지

남의일로만 생각했던장례절차 어디서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할 때내 가족의 일차점 세심한준비로 큰 안목을 드렸습니다.
(주)금호상조는관혼상제(장례문화, 결혼문화, 잔치문화)를 새롭게 정립하고가격 현실화와 고품격 서비스로 예약및행사를 대행해 드리는전문회사입니다.

일 반 형	20,000X120회=2,400,000원
고 급 형	30,000X100회=3,000,000원
최고급형	40,000X 90회=3,600,000원
VIP형	50,000X100회=5,000,000원



직 원 모 집			
직 책	인원	자 격	보 수
지점장	0명	관리(조직)능력자	기본급+관리수수료
팀 장			영업수수료+각종 행사비
상 조	0명	무경험자 가능 30-50대 (보험경력자 교수익)	기본급(월근비)+영업수수료
설계사			각종 행사비
지 사	0명	회사규정 심사	영업비+관리수수료+ 각종 혜택 등 지원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출동 대기중입니다.



관혼상제 토탈 웰빙 서비스-

(주)금호상조

전국(대표) 1566-4428

홈페이지 : khsangjo.com

장례 행사 진행 절차

갑자기 타친 복잡한 장례절차 이제 안심하세요.

갑자기 타친 복잡한 장례절차 이제 안심하세요.

가입 고객 전신입력 금융결제원 고객탐증거래 신청

(주)금호상조중서및 약관발급우편발송 7-15일 소요

월불입금×10회=계약금액회원가입과 동시에 효력 발생

월불입금×12회=계약금액회원가입과 동시에 효력 발생

임종시(주)금호상조로 전화접수 고객센터 전국 1566-4428

상황접수 회원조회 고안성명 및 병원확인

장례지도사 현장 파견

장례용품제공, 고인사신수습 및 반소, 연, 유족과의 종료, 기공에 따라서 알맞는 행사 진행

염습 및 입관, 제사 및 종교의식 진행

발인제시간에 맞추어 장의차배차, 장지로출발 안내

서비스 만족도 조사

(주)금호상조 가입혜택 종료

당사 대행 업무

• 공원묘지알선 • 묘지이사 • 식물 및 조경 • 풍수지리
• 산역인부 • 여지알선 • 꽃장여 • 화환 • 도시락 등



불교계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김진홍 목사(뉴라이트한국연합)를 초청해 주일예배를 드린 것을 종교편향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기독교계는 그것이야

청와대 예배 반대는 종교편향적 발상

기독교계, 불교계의 이명박 대통령 주일예배 반대 비판

말로 종교편향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범무법인 로고스 전용태 변호사는 “모든 기본권은 집사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종교의 자유, 예배의 자유, 신앙고백의 자유는 그것이 국가변영과 발전을 위하여 원동력으로 현대 국가가 그 자유를 절대적으로 보장하고 있고, 우리 헌법도 그것을 범

률적으로 침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 변호사는 또 “헌법이 금지하는 종교편향은 정책편향을 말하고, 정책편향은 교육편향, 예산편향을 금지하고 있을 뿐, 국가공무원이라고 그것이 정책적이 아니라면 절대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이명박 대통령이 주일날 청와대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법률적으로 침해할 수 없는

절대적 기본권”이라며 “이것이야말로 종교 편향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의 청와대 예배에 대해 조계종 승려 출신인 울산대 법학과 이정훈 교수도 지난해 11월 동국대에서 열린 불교학회 세미나에서 “예배는 국민의 기본권이기에 때문에 종교 편향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본지 제휴사 김철영

성남시기독교연합회 회장에 정학채 목사 선출

- 정학채 목사(서울동노회, 영광교회) 회장으로 선출
- 성남시기독교연합회 14일 제39회 정기총회 열려



지난 11월 14일(토) 오전 10시 30분에 영광교회(담임 목사: 정학채)에서 열린 제39회 성남시기독교 연합회 정기총회에서 정학채 목사가 회장으로 선출됐다.

1부 개회예배는 부회장 정학채 목사의 사회로 부회장 김용곤 목사(신진교회, 대신)의 기도과 사회자의 빌 120-22의 성경봉독 후 영광교회 중전단과 정찬희 권찰(국립오례리단 솔리스트)의 특송, 회

장 고석조 목사(성도교회, 함정)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라"라는 제목의 설교와 이대배?성남시장의 인사와 총무 손영암 목사(큰사랑교회, 대신)의 광고와 직전회장 김광운 목사(남광교회, 함동)의 축도로 드렸다.

2부 회무처리하는 회장 고석조 목사의 사회로 증경회장 백남선 목사(성일교회, 기침)의 기도 후 각종 보고를 받고, 임원선거에 들어가

수석부회장인 정학채 목사(영광교회 개혁)를 만장일치로 박수로 받자는 이용규 목사(증경한기총회장)의 동의와 엄기호 목사의 제청으로 박수로 정학채 목사를 회장으로 선출하는 등의 주요안건을 처리하고 증경회장인 이용규 목사(성남성결교회, 한기총증경회장의 축도로 정기총회를 마치고 영광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만찬으로 친교와 단합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선출된 주요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정학채 목사(영광교회, 개혁), 수석부회장: 김용곤 목사(신진교회, 대신), 총무: 김유진 목사(예수마음교회, 기성), 서기: 김덕남 목사(장대교회, 함정), 회계: 이상은 목사(성은교회, 기침) 성남시기독교 연합회는 약 1200개의 교회가 소속되어 있으며 제39회 회장으로 선출된 정학채 목사는 서울동노회 노회장, 총회세계선교회 이사장, 개혁공보부 사장, 개신대학원대학교 총동문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총회 노회영임위원회 서기로 섬기고 있다.

청주은혜순복음교회 부흥회 열려



큰일을 계획하는 귀중한 집회라면서 집회의 중요성을 밝혔다.

강사로 나선 송미순 목사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수14:12)”라는 표어를 삼고 4일간

청주은혜순복음교회(담임 김명순 목사)는 지난 11월 16일 ~ 19일 밤까지 성남영광제일교회 송미순 목사를 강사로 초청 심령대부흥회를 가졌다.

김명순 담임 목사는 개척 6년째를 맞아, 교회가 날로 부흥되고 있다며, 꿈을 이루며 새 해 열어 더

회자들이 참석문제를 해결 받고 병든 자들이 치유 받는 역사가 일어나

청주은혜교회는 청주시 상당구 내덕2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담임 김명순 목사는 신앙상담, 가정예배, 자녀문제, 사업문제, 질병문제 등을 상담해주고 있다.

예정합동 WCC 가입교단들과 연합불가 강한 입장

민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 줘야...

예정합동(총회장 서정배 목사)은 예정합동의 입장을 정리한(사) 총회는 WCC 가입교단들과



▲ 서정배 총회장이 실행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는 연합불가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예정합동은 총회실행위원회에서 지난달 27일 5중 총회 회관에서 제94회기 첫 정책실행위원회를 갖고 이같은 입장을 정리했다. 총회 관계자는 “WCC와 관련하여 이는 신학적, 신앙적 문제이므로 WCC에 속한교단들과 연합할 수 없다”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추진방안은 총회 임원회에 맡겨 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달 2일 총회장 서정배 목사는 담화문을 통해 밝혔듯이 “우리는 WCC와 함께 할 수 없고, 그들 교단들과는 연합을 불가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예정합동총회가 이같은 WCC 가입 교단들과 연합불가를 내세

한 예정합동 교단과 총회장 강단 교류는 물론 연합활동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하지만 이는 교계 연합활동에서 주도권 상실 가능성도 생각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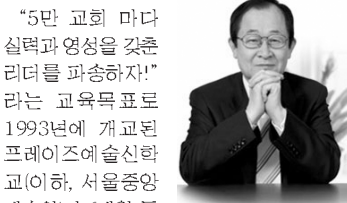
예정합동총회가 이처럼 강경한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교단안팎에서 WCC와 WCC 한국총회 유지를 놓고 찬반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예정합동 실행위는 WCC문제 외에도 세례교인현금 예산감소 예상에 따른 대책, 총회본부및 신학기관 구조조정위원회 업무추진방향, 21C 총회 종합센터 건립 및 전국교회예배모범 준수 건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기사 뉴스파워

서울중앙예술원 초대총장 김용완 목사 취임

노랑진캠퍼스 '프레이즈예술신학교' '서울중앙예술원'으로 거듭나며 기독교문화 리더를 제대로 키운다



“5만 교회 마다 실효와 영성을 갖춘 리더를 파송하자!”라는 교육목표로 1993년에 개교된 프레이즈예술신학교(이하, 서울중앙예술원)가 6개월 동안의 리모델링을 마치고 10월 23일(금), 노랑진273-7번지로 캠퍼스를 이전한지 한 달 만에 총장 취임과 이전 감사를 11월 24일 오전 11:30분에 구, 연세중앙교회 자리에 리모델링된 대에배실에서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피종진목사 설교, 동작갑 국회의원 전병현국회의원의 등 많은 분들이 순서를 맡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노랑진 기독교텔레비전 사옥 뒤에 위치한 구 연세중앙교회 위치로 이전한 "서울중앙예술원"은 위십리터와 음악목회자, 기독교연예인 키우기 위한 본격 시스템을 갖춘 고차이벤 캠퍼스 이전을 하였다고 한다. 그리하여 학생들의 염원이던 24시간 사용할 수 있는 개인 연습

실을 지하가 아닌 지상 3층에 구축하여 홈페이지(www.praise.ac)예약시스템을 갖추고 11월 30일부터 방학없이 연중무휴 예약에 들어간다.

노랑진캠퍼스로 프레이즈 서울중앙예술원이 이전하면서 세 가지 변화가 주목된다.

첫째, 학교명 변경과 학부의 전문화이다. 프레이즈예술신학교의 이름에서 "서울중앙예술원"으로 변경되면서 프레이즈 학부(실용음악과, 위십리터과, 음악과, 기독교진목사 설교, 동작갑 국회의원 전병현국회의원의 등 많은 분들이 순서를 맡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노랑진 기독교텔레비전 사옥 뒤에 위치한 구 연세중앙교회 위치로 이전한 "서울중앙예술원"은 위십리터와 음악목회자, 기독교연예인 키우기 위한 본격 시스템을 갖춘 고차이벤 캠퍼스 이전을 하였다고 한다. 그리하여 학생들의 염원이던 24시간 사용할 수 있는 개인 연습

목사(프레이즈학부 학장정헌터학부 학장, 김민석 유로 오케스트라 단장 등이 취임식을 가졌다.

세 번째, 보컬을 가장 잘 가르치는 SCAI(서울중앙예술원의 영어이니셜)로 4년제 실용음악을 최초로 개설한 프레이즈답게 실용음악의 최강을 꿈꾼다. 이를 위하여 국내 최고의 교수진들이 세팅되었으며(예, 최성, 거미, 박병<태양>, 윤미래, 렛시, 이안, 박용하, 정선아 등의 보컬 코치였던 전봉진교수를 비롯한 방송현, 원수영, 임국희, 고영준, 장영주, 강태우, 하림등 보컬교수단 7명~10명)

2009년 말까지만 무지함으로전행하는 특차모집 기간은 12월 1일부터 10일까지이다. 특차에는 필기고사와 면접고사로 전형하고 입학금 30만원이 면제되는 특혜가 있다. 물론 목회자의 추천서를 받아야 전형할 수 있다. 정시전형은 1월 2일~10일까지이다. 서울중앙예술원으로 거듭나는 프레이즈의 미래가 정말 기대된다.

문의 전화 : 02-822-6001

대한기독사진가협회 송년회 알림

우리 대한기독사진협회로서는 격동의 한 해였던 2009년도, 수많은 파도를 겪으면서 아직 작지만 오붓하고 따뜻한 모임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회원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제 한해의 끝자락을 바라보면서 회원님들과 함께하는 저녁 시간을 갖기 위해 송년모임을 기획하게 알림니다. 년 말에 모두가 바쁘시고 우리 협회일 외에도 많은 일정이 있으시겠지만 여기에 따뜻한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 송년 모임 일정 -----

- 모이는 날 / 2009년 12월 14일
- 모이는 장소 / 대광교회 교육관 (경기도 양주시 관양1동)
- 모임 대상 / 대한기독사진가협회 회원및 회원가족
- 회비 / 1인당 10,000원

----- 세부일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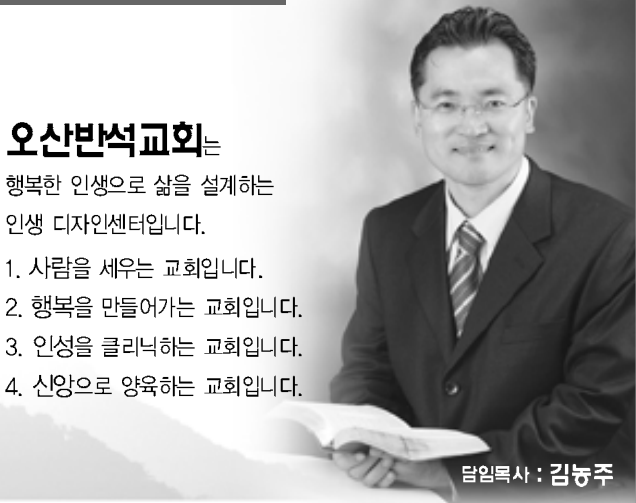
- 1부: 운영위원회의 (오후 3시 ~ 4시) <진행 / 엄영수 회장> 운영위원들은 의무적으로 참석 (일반 회원도 오셔서 회의 내용을 참관할 수 있음)
- 2부: 송년감사예배 (오후 4시30분 - 오후 5시) 사회 / 이상중목사 설교 / 김연경목사 - 전체 회원 참석
- 3부: 저녁식사와 간담회 (5시~7시) / <진행 / 김종욱 부회장> 한 가정에서 한가지만 음식을 장만해 오기로 해서 다 함께 나누도록 하였습니다. 협회 발전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 하나씩 의무적으로 준비해오세요.

- 4부: 가족 사진및 프로필사진 촬영과 모델(스튜디오) 촬영 이벤트 -진행 주승철 아카데미원장
- * 가족사진 촬영과 프로필 사진 촬영을 위해서 의상을 준비해 오십시오.
- (목사님들은 목회가운을 준비하셔도 좋습니다)
- 회원님들께서는 꼭 참석하셔서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대한기독사진가협회 · 대한기독교영상선교회

회장 / 엄영수 부회장 / 이상중 이진호 김종욱 박영국 사무국장 / 이경수 아카데미원장 / 본회 주승철 전북지회 강성훈 윤림

참 좋은 교회를 소개합니다.



담임목사 : 김능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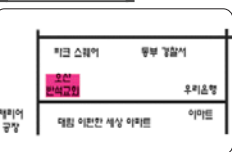
오산반석교회는

행복한 인생으로 삶을 설계하는 인생 디자인센터입니다.

1. 사람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2. 행복을 만들어가는 교회입니다.
3. 인성을 클리닉하는 교회입니다.
4. 신앙으로 양육하는 교회입니다.

예·배·시·간			
주일새벽예배	오전 06:00	주중새벽예배	오전 05:30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저녁 8:3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주일학교	오전 9:20
수요예배	오후 7:30	WVA영사교육	오후 1:00(토)
일파과점	오후6(주일)	중·고등부	오후9:30(주일)
디사이플스	오후 7:30(화)	청년부	오후 7:30(토)

찾아오시는 길



오산시 원동 845번지 양우프라자 8층 Tel : (031)378-9349
신앙상담 : 010-2378-9349 http://www.반석교회.kr

“가족같이 가정같이 평안하고 행복한 정안교회”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천국복음을 증거합니다. 죽은 영혼, 침체된 영혼에 생기가 들어옵니다. 반드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확신합니다. 참 진리의 맛마름을 느끼는 곳에 찾아옵니다.



담임목사 장 승

온 세상을 향하여 천국복음을 전파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충남 당진군 송악면 봉곡리 55-6 Tel. 041)356-0644 / Fax. 041)356-0646
E-mail : sunghyun732@hamail.net H·P : 011-9027-9712

‘지저스타임즈 창간 2주년’ JTN방송 5주년을 축하합니다

축 창간 2주년

지저스타임즈가 창간 2주년을 축하합니다. 보다 좋은 신문과 JTN방송이 되시길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웨신총회**
총회장 성홍경 목사 외 임원 일동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5동 442-105 (201호)
전화 02-835-2607 www.웨신총회.net

축 창간 2주년

대한예수교장로회 **송석교회**
성홍경 목사 성용구 목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흥 599-4
전화 031)204-5580

축 창간 2주년

대한예수교장로회 **지구촌교회**
담임 이홍규 목사(웨신총회 부총회장)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4동 322-33
전화 02)845-3376, 848-3376

축 창간 2주년

총회부흥사협의회
대표회장 : 장창윤 목사(경천교회)

서울시 구로구 구로5동 530-22 열린찬양교회
전화 010-5678-9950

축 창간 2주년

예수교장로회 **남부교회**
노회장 조광표 목사 외 노회원 일동

전남 목포시 연산동 1236-4
전화 061-274-1808

축 창간 2주년

대한예수교장로회 **강동교회**
노회장 정규남 목사 외 노회원 일동

경기 수원시 팔달구 고동동 277-10(206호)
☎ 010-3136-0697

축 창간 2주년

대한예수교장로회 **강원교회**
노회장 박영남 목사 외 노회원 일동

강원도 춘천시 소양로 2가 1번지
☎ 011-364-4280

축 창간 2주년

대한예수교장로회 **경기교회**
노회장 송주창 목사 외 노회원 일동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신화1리 1071-1
☎ 031-356-3997

축 창간 2주년

대한예수교장로회 **경성교회**
노회장 김태곤 목사 외 노회원 일동

서울시 구로구 구로2동 725-9
☎ 011-710-1770

축 창간 2주년

대한예수교장로회 **경인교회**
노회장 김승년 목사 외 노회원 일동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571-1 (보경빌딩2층)
전화 010-2972-7859

축 창간 2주년

대한예수교장로회 **경천교회**
노회장 장창윤 목사 외 노회원 일동

서울시 구로구 구로5동 530-22
☎ 02-862-3181

축 창간 2주년

대한예수교장로회 **남서울교회**
노회장 장한국 목사 외 노회원 일동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748 대림프라자7층
☎ 010-4436-7060

축 창간 2주년

대한예수교장로회 **동서울교회**
노회장 이병만 목사 외 노회원 일동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444-3 2층
☎ 010-3350-2155

축 창간 2주년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노회장 허성인 목사 외 노회원 일동

서울시 은평구 수색동 376-5
☎ 010-4270-3462

축 창간 2주년

대한예수교장로회 **성경교회**
노회장 이기식 목사 외 노회원 일동

서울시 금천구 시흥5동 920-46
전화 02)804-4486

축 창간 2주년

대한예수교장로회 **수도교회**
노회장 김춘택 목사 외 노회원 일동

경기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69-12
전화 010-4166-2307

축 창간 2주년

대한예수교장로회 **수원교회**
노회장 김영배 목사 외 노회원 일동

인양시 만안구 안양6동 587-35 한양빌라7동201호
☎018-282-0460

축 창간 2주년

대한예수교장로회 **중부교회**
노회장 고정연 목사 외 노회원 일동

서울시 중랑구 묵2동 244-107
☎ 011-9115-6461

축 창간 2주년

대한예수교장로회 **중앙교회**
노회장 손찬현 목사 외 노회원 일동

서울 강서구 화곡8동 49-57 성은빌라402
☎ 011-497-4577

축 창간 2주년

대한예수교장로회 **한서교회**
노회장 하중우 목사 외 노회원 일동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507-23
☎ 010-2740-1571

축 창간 2주년

대한예수교장로회 **한성교회**
노회장 전명철 목사 외 노회원 일동

경기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97-2
☎010-4945-3927

축 창간 2주년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교회**
노회장 정승룡 목사 외 노회원 일동

2836W.8th St.#101 Los ANGELES ca 9005
☎213-365-2915/ 213-200-2592

축 창간 2주년

대한예수교장로회 **빛과소금교회**
담임 이재갑 목사(본지, JTN방송 운영이사)

서울 노원구 상계2동 389-50
☎02-938-3521 / 016-228-3521

축 창간 2주년

대한예수교장로회 **온누리교회**
담임 전현구 목사(본지, JTN방송 상임이사)

충남 당진군 당진읍 채운리 391-7
☎041)356-0688 / 019-410-0688



“1구좌 1만원
후원 천사가 되어주십시오”

농협 계좌 455030-56-005509
(예금주: 정기남)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성교회**



담임 장창수 목사

부목사 전 정 우
안수집사 윤림 이 조 차 경 현
호명유두경홍현
종헌영현식현문

말씀으로 무장화!
기도로 능력화!
생활로 향기화!

447-140 **경기도 오산시 결동 651-1**
Tel : 031)373-1151, 377-9372
FAX : 031)372-2583

삶을 변화시키는, 글로보시티 내 인재 양성 및 복음화를 위한

획기적인 말씀축복 [전도집중 말씀집중 독서집중] 특별집회

부흥회 + 전도집회 + 재직세미나 + 교사세미나 + 수련회 효과

집 회 특 정

- 모든 전도 프로그램, 교회성장 프로그램에 날개를 달아줌.
- 말씀으로 무장할수 있어 성도들이 이단에 넘어가지 않음.
- 목회전반에 큰 활력을 받음(전도, 기도, 설교, 교육)
- 전도에 자신을 갖게 되어, 헌신, 충성의 사람으로 변화됨.

강 사 특 정

- ♡ 확실한 동기부여
- ♡ 열정과 감동이 있음
- ♡ 삶의 희망과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함



강사 김동기 목사(함동)
말씀사랑운동본부장

주관 : 말씀사랑운동본부
후원 : 지저스 타임즈
집회유치문의: 041)904-0675
011-9119-7661(직통)

전국 교회 기도원 집회, 전도 집회, 목회자 세미나,
교사세미나, 수련회 각 기관 특강
※ 집회를 초청해 주신 전도교회, 기도원 각 기관에
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 겸손히
열심히 기도로 준비하여 섬기겠습니다.

말씀을 읽는자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실패하지 않는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석교회**



담임 정재규 목사



(우 153-837)
서울시 금천구 시흥 4동 3-64번지
☎. 02)803-4549

한국기독교장로회 **홍성제일교회**



담임 오종설 목사

잘 모이고
잘 배우고
잘 전하자!

041)634-0441 (사무실)
041)633-9146 (목양실)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 9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소망교회**



담임 김동락 목사



문의: 031) 968-0199
교회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719번지

일반적으로 누구나 말하는 우울증의 원인을임상자들이나 혹은 정신의학자들의 의견을 조금 주의 깊게 나누어 보고 들어다 보면 우울증을 일으키는 원인을 (1) 유전적인 원인 (2) 심리적인 원인 (3)신경내분비와 신경생화학적 요인 (4) 신체적인 원인 (5) 사회적인 원인 (6)기타알수없는원인 등으로 분류한다.

그 외에 특별히 어떤 원인을 추가하거나 빼기도 하지만 우울증을 일으킨다고 하는 원인을 분석한 것은 그저 대동소이 하다. 이러한 이론원인에 근거한 이론 때문에 약을 쓰거나 혹은 정신심리치료를 하거나 하는 등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치료라는 말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환자로 모아서 치료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보통은 이론이나 한 분야의 학설을 배우는 사람들은 주로 하나의 이론과 학설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관례이지만 가설로 일관 되어진 우울증과 관련된 정신치료행위는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필요 없는 약들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치료의 효과에 대해 비교해본다면 비교해 볼 필요도 없을 만큼 분명한 회복 또는 재발의 효과가있다. 성경 가운데 나타난 한 인물 엘리야를 통하여 요즘 현대인들이 말하는 우울이라는 증상을 조경해볼 필요가 있



김주원 박사
본지 상임운영이사

다. (왕상 18:19-38)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과, 당 시대에 오직 여호와의 섬기는 선지자가 자신밖에 없다고 믿었던 선지자 엘리야의 사건은 현대에서 말하고있는 우울증이나 기타 자살충동 등등에 관하여 상당히 많은 힌트를 제공해 준다. 힌트를 제공해 줄 뿐만아니라엘리야라는 한 사람이 어떻게 그 모든 과정을 극복해 내고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병원에서 말하는 치료가 되었는지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다. 특히 이 인물의 삶의 기록을 통하여 보면 결국 이 사람의 치료는 약물을 의존하거나 혹은 정신과적인 심리이론에 의하여 치료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성경적인 방법에 의하여 분명히 자신의 문제를 해결한 것을 볼 수 있다. 갈릴산 산상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함께 힘을 겨루면서도 당당했던 선지자 엘리야... 그 사람은 당시에 사람들의 상식이나 관념을 깨고 하나님께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었던 선지자

건강칼럼 지난호에 이어

우울증은 결코 병이 아닙니다!Ⅳ

이다. 또한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여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여 비를 내리게 했던 능력의 선지자이지만 이러한 선지자에 대하여 현대의 정신과의사들이나 심리상담가들에게 이야기를 해 준다면 틀림없이 종교집착증이나 종교종착자로 치부하여 자신들이 알고 있는 정신 심리이론으로 치료를 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엄청난 능력을 보였던 선지자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이라는 권력자의 말 한마디에 줄행랑을 치고 도망을 한다. 그리고 광야로 도망을 가서 로렌나무 그늘 아래 앉아서 "여호와여 낙낙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취해 가시기를 간구했다. 이렇게 급변한 엘리야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만약 정신과 의사에게 상담을 의뢰하면서 엘리야라는 이름을 빼고 엘리야의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조울증을 가졌던 사람처럼 펄펄 뛰던 사람이 죽음을 내려달라고 간구하는 것 같은 증상을 보이고 여기저기 도망을 다

니다가 탈진을 하여 나무 아래 기대어 죽기를 갈구하는 상황을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면 의사는 분명히 엘리야를 격리하여 수용한 후에 그가 느끼고 있는 자살 충동까지 치료하려고 했었을 것이다. 또는 우울증을 일으키는 원인이나 그 이론에 근거하여 엘리야의 심리적 원인이나 환경적 원인 그리고 사회적인 원인과 알지 못하는 과거의 일까지라도 들추어내어 그가 왜 그러한 행동을 보였는가를 연구하려고 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엘리야에게는 굉장히 많은 정신병명과 기타 병명을 붙여서 장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로 기록을 한 후에입원을 시켰을 것이다.

과연 엘리야는 우울증 환자였는가? 하는 부분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한다. 엘리야 같은 사람이 겪었던 이야기가 엘리야라는 선지가 개인에게만 있었던 사회적인 사건인가 아니면 오늘날 까지도 계속되는 인간의 삶에서 나타나는 본질적인 나쁜 모습을 지닌 인간의 모습인가를 통찰해 보지 않으면 안된다. 엘리야가 겪었던 심리적인 혼돈처럼 보이는 현상(Complex)이 과연 오늘날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분명히 존재한다. 2008년을 사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엘리야와 비슷한 경험을 하게 하는 어렵고 중대한 문제들이 있다. 심지어 어떤 믿는 이들은 자신이 거듭난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기도 하고 심적으로 아주 극심한 혼란의 상태 속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들이나 현상에 대해 정신적인 병(mental disease 또는 mental sickness)이라고 말하기는 너무나 무리한 경우

들이 많다.

보통 신경정신과 병원에서 우울증을 나타내는 증상에 대해 말할 때에 ① 우울감, 불안, 공허감, 절망감 등이 계속될 때 ② 죄책감, 무기력감, 의욕 상실, 때때로 흥미를 느끼지 못할 때 ③ 자살에 대한 충동을 느낄 때 ④ 초조, 피로감 등이 들 때 ⑤ 수면 시간이 지나치게 적거나, 지나치게 많을 때 ⑥ 식욕 저하나 체중 감소가 있을 때 ⑦ 쉽게 짜증이 날 때 ⑧ 집중력, 기억력 저하가 있을 때 ⑨ 두통, 소화불량, 만성 통증 등의 신체 증상이 있을 때 등등과 같은 증상이 있을 때 우울증의 증상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위에 언급한 증상은 개개인들의 삶에서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증상은 아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해 아래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와 비슷한 것들을 낱마다 경험하기도 하며 어려운 환경이나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다가오면 좌절하기도하면서 겪는 삶의 증상들이다. 물론 환경적인 요인이나 극심한 어려움들 때문에 겪는 혼란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울증이라는 말 때문에 자신이 어려움을 겪으면 도파제로 우울증을 앓는 환자 흉내 내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며, 교회 안에서는 극심한 죄로 인하여 만들어진 염려나 죄책감으로부터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들이 그저 우울증이니 뭐니 하는 병명을 둘러럼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도파하려고 하는죄의 습성이 또 다른 죄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상담원리 ⑫ 상담과 봉사

K 사회복지관 상담실에 상담자문위원으로 있을 때의 일이었다. 일주일에 한번씩 상담요원으로 자원봉사 하던 중 어느날 30대 중반의 여인이 상담을 요청해 왔다. 흔하게 있는 이혼 문제라니 했는데 만나 보니 이미 이혼은 기정사실이고, 이혼 절차와 딱한 형편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러 온 것이다. 나는 당황했다. 평소 이런 사정에 밝지 못했고, 이와 같은 상담을 접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여기저기 전화로 문의해서 알려 주고 상담을 종료했다.

상담은 봉사이기도 하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낙담하게 하기도 하며, 용기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지혜의 눈을 뜨게도 하는 봉사활동이다. 그러므로 봉사로써의 상담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 상담은 봉사체제라 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고 본다.

21세기의 상담은 내담자의 요구와 필요를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즉 가정은 물론 학교, 직장, 사회 단체로 상담자가 찾아가서 봉사할 수 있는 제도와 법적 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공공단체나 공공시설에 상담실을 열어, 주변의 사람들이 요구하는 문제에 능률적으로, 효과적으로 해결해 주었으면 한



조영길 교수
· 백석문화대학
· 본지 논설위원

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에는 5만여 개신교회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이 시설에 상담실을 개설하여 상담활동을 전개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 여긴다. 교회목사님은 누구나 부담없이 만날 수 있는 성직자이며, 영적 생활은 물론 육적생활의 지도자가기 때문에 인생의 조력자로서 훌륭한 상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다면 상담은 하나의 봉사로써 생활 속에 뿌리를 내릴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요한복음 03: 1-20 참조)에 예수님이 수전과 대야를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이야기가 있다. 하나님의 속성이 자기를 주는 것이기에 마땅히 우리도 서로에게 자기를 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교훈의 말씀이다. 이 이야기에서 흥미있는 사실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런 봉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행동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을 가르쳐 준 것이며, 그들도 예수님을 통해 그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태도를 반영하는 의미에서 자기를 주는 사랑의 태도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다.

"주시는 하나님", 즉 "주는 것으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다. 이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확고한 것이었다. 하나님은 구약성경에서부터 주시는 일을 시작하셨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돕는 배필과 창조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으며, 타락 후에는 가죽 옷을 지어주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아들과 기업을 주셨고, 이삭에게는 부인을, 이스라엘에게는 언약을, 그의 백성에게는 땅을 주셨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선함을 누릴 자격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하나님은 단지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의 대리자로 삼기 위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 주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나타난다. 예수님은 "전파하기" 위해 오셨는데 전파라는 그 형식 자체가 임종의 주는 일이다. 예수님이 전파하신 내용은 "회개하고 믿으라"는 것인데, 이 말씀은 자에게서 돌아서서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의미한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위해 오셨음을 분명히 밝히셨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주심의 특징은 전적이며, 포괄적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심에는 취소라는 것이없다. 예수님은 자기제자들 역시 주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의 발을 씻는 일을 직접하셨던 것이다. 상담은 내담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 한다. 상담의 기쁨에 사람을 기뻐 맞추는 식의 상담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내담자들의 문제와 욕구와 바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봉사하게 될 때 기쁨을 주게 되는 것이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나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나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요4:13, 14)

물은 생명의 근원이다. 성경의 창세기는 창조의 원료가 물이었음을 암시해 주고 있다(창1:2) 모든 동식물의 주성분은 물이다. 인체의 주성분도 물이다. 성인의 경우 60%, 신생아의 경우 77%, 태아의 경우 97%가 물로 구성되어 있다. 창조의 원리를 이해하면 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된다. 밥은 두세 달 안먹어도 살 수 있지만 물은 안먹으면 도저히 생존할 수 없는 이유도 여기 있다. 물은 영양분 중의 영양분이고, 최고의 보약이다. 영양학자나 의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을 액세서리로 여기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물은 H2O가 아니다. H2O는 인간이 만들어 낸 화학적인 물질이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은 아니다. 물은 "H2O + 미네랄 + 산소"이다. 물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수십종의 미네랄을 포함하고 있다. 사람의 몸은 흙으로 창조되어(창2:7) 흙으로 돌아간다(창3:19) 흙을 구성하는 성분과 사람을 구성하는 원소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은 현대과학의 결론이다. 흙으로 창조된 인간이 상생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토양 깊숙이 존재하고 있는 각종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한다. 식물의 경우도 토양의 양분을 일부 흡수하지만 표면에만 한정된다. 지하 깊은한 곳에서 나온 물일수록 좋은 물이라는 말은 여기에 가인한다. 대부분의 약수가 거대한 산맥을 뚫고 나온 광천수원은 주지의 사실이다. 예로부터 맑은 물이 보약이라는 말도 다 일리가있는 말인 것이다.

전염병이 만연하던 시대에는 물을 끓여 먹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그러나 최근들어 경도미네랄 함유량이 높은 물이 성인병을 예방한다는 연구결과가 세계 각국에서 발표되면서 양상이 바뀌게 되었다. 성인병 시대인 현대는 성인병 예방을 위해서라도 생수를 권장해야 할 형편이다. 물을 끓

황성주 박사의 "성서 건강학" ⑭

생수가 최고의 보약이다!

일 경우 물에 녹아 있는 용존산소가 제거됨은 물론 물에 함유된 미네랄이 화학적 반응으로 가라앉아 물의 영양분이 상실된다. 우리의 국민은 대체로 물의 섭취량이 적다. 식사시간 전후를 제외하면 평소에도 물마시는 일이

별로 없다. 구미의 학자들은 매일 8잔의 물을 마실 것을 권하고 있다. 대부분 물로 이루어진 몸에 대한 충분한 수분의 공급은 건강유지에 필수적이라 하겠다. 특히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액농축현상이 생겨 많은 양의 물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방지할 경우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병의 발생을 초래하게 된다. 취침 전 마시는 한 잔의 생수는 밤새 신진대사를 활성화 시켜 주고 기관지 점막에 탄력을 부여해 감기를 예방해 준다. 기상 후 마시는 한 잔의 생수는 위장기능을 강화해 주고 위장 청소 및 변비 예방에 기여한다. 충분한 물의 섭취는 노화방지는 물론 피부를 상생하고 탄력성있게 해줌으로서 미용에도 좋다.

늘어난다는 것은 신체에 대한 물의 비율이 줄어 드는 것을 의미한다. 젊고 상생하게 살려면 물을 충분히 마셔야 이렇게 훌륭한 영양분을 가진 물을 멀리하고 각종 색소와 염분이 첨가된 인공음료를 즐기는 사람은 어딘가 병들어 있지 않나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음료를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르는 경향이 있다. 갈증이라는 현상은 물자연수에 대한 생리적 필요성이 인공음료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인공음료를 즐기는 사람들은 왜곡된 필요를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다. 생수가 맛있게 느껴지는 사람은 확실하게 건강한 사람이다.

영적 건강의 차원에서라도 마찬가지다. 인간 최대의 행복은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이다. 인간은 예수 안에서만 참된 민족을 누리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세속적인 것들은 가지만 가질수록, 마시면 마실수록 목마르게 되어있다. 인간이 가지는 총체적 갈증의 궁극적 해결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다니엘교회

표어 : **말씀이 용하는 교회(눅 4:21)**
오직기도, 오직전도, 오직예수, 오직믿음

하나님이...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단 1:17)



담임 고성규 목사



교회 031)313-3464, 312-2613
경기도 시흥시 은행동 250-1
<http://daniel.onmam.com>

성서하나님의교회

(the Church of God of Prophecy Korea)
(이천성서수련원)

- 원로목사 : 이 철 재 감독 (Bishop)
- 담임목사 : 이 정 민 목사 (Minister)

www.scogop.net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절)

생명의 양식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고후 3장 17절)"

예 배 안 내	요 일	시 간	장 소
주일 예배	주 일	오전 11:00	본당 (2층)
찬양 예배	주 일	오후 3:00	이천 수련원
유치부 예배	주 일	오후 1:30	기도실
초등부 예배	주 일	오후 1:30	본당 (2층)
중·고등부 예배	주 일	오전 9:00	지하 성전
청년대학부 예배	토요일	오후 6:30	지하 성전
스페인어 예배	주 일	오후 1:30	지하 성전
새벽 기도회	매일(월~금)	오전 5:00	지하 성전
수요 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지하 성전
금요 기도회	금요일	오후 9:00	지하 성전
2시 기도회	매일(월~토)	오후 2:00	기도실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127-3호 [02-465-4090]
성서수련원 [이천 031-634-3590]
부설 : 새생명 어린이집 [02-464-3107]

임마누엘 선교교회

현 병 우 목사

주일예배 : 오전 11시 / 오후 찬양 2시
수요예배 : 오후 7시
금요철야 : 오후 9시
월·화 영성사역 : 오전 11시 / 오후 7시



임마누엘 영성원
☎. 011-9710-9190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20-1



피종진 목사
본지 상임고문

“미래를 예견하고, 제시하고 선도하는 언론 되어주길.”

할렐루야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저스타임즈 2주년과 JTN방송 5주년을 축하합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에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그 기록에는 기록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기록에는 기록을 한 사람들이 있으며 그들의 시각과 생각과 표현에 따라서 역사는 전해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후대에 전해지면서 그 시대를 살지 않아도 경향이 되고 교훈이 되고 미래의 교과서가 되어왔습니다. 그만큼 기록은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연결고리요. 미래를 향한 중요한 지침서가 되고 있기에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사고와 생각과 행동과 표현을 하는가에 따라 우리 후손들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저스타임즈는 하나의 신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선도하는 참언론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엄신형 목사
한기총 대표회장

“사람의 역사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창간 2주년을 맞은 지저스타임즈와 JTN방송 5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지저스타임즈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이 창조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은 사람의 역사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초점이 맞추어지는 세상이어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사람의 역사를 만들기 위하여 사람을 물질로, 지혜로, 심지어 하나님까지 이용하여 바벨탑을 쌓아가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그동안의 역사를 볼 때 언론역시 자유로울 수가 없으며 언론인들이 더욱 큰 책임감을 가지고 개혁의 길을 열어가야 할 것입니다. 지저스타임즈는 그 제호가 말해주듯이 예수그리스도의 시간입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예수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과 영원과 시간까지 다스리시고 지배함으로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지저스타임즈 창간 2주년 JTN방송 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살, 5살이면 거정이 없고 구김살이 없는 순진한 나이인데 나이가 많아지면 세상풍파에 시달려 변질되어가고 미는것 같이 신문도 방송도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데 아직 변질되지 않은 신문 인터넷 방송인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성장하여 교목자도 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랜 역사가 흘러도, 거대한 나이의 신문사 인터넷 방송이 되어도 변하지 않고 이 시대에 밝은 빛을 비추어 주는 신문사 방송사가 될 것을 믿고 축사를 드립니다. 데레사 수녀님은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당한자의 사랑의 어머니였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온 세상 사람들의 존경받는 어머니였습니다. 지저스 타임즈도 데레사 수녀님처럼 가난하고 병들고 비천한 사람들의 사랑의 어머니 신문사가 되어 세상이 주는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신문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지저스 타임즈도 한 알의 밀알이 되어 구원받은 생명을 인도하는 신문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거룩한 신문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며 부흥하기를 기원합니다.



성흥경 목사
본지 상임이사
예장대한총회총회장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며..”

지저스타임즈 창간 2주년과 JTN방송 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는 지금 각 분야에 거쳐 혁명적 변화가 일어나고있는 21세기 상황에서 현대 정보산업 사회는 언론매체의 다양한 기능이 요청되고 있는 이때 귀 신문은 한국 교계에 변혁과 삶 현장을 변화시키는 기호로 교회정보와 언론 창달에 크게 아버지하여 독자들에게 교회선교비전과 목회정보를 공급하고 특색 있는 복음적 메시지로 신앙과 교회 부흥운동을 활성화시키는 영적 충만한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신문이 되길 기원합니다. 한국 교계를 대변할 대변자로서의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뛰여 줄 것을 바랍니다. 많은 독자들의 적극적 반응으로 많은 후원자와 애독자가 늘면서 지저스타임즈는 사랑받는 신문으로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든든한 대변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지저스타임즈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복이임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용규 목사
본지 상임이사
예장대한총회 부총회장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보혈, 성령의 역사가 담겨지길”

지저스타임즈가 벌써 2주년, 정말 축하드립니다. 지저스타임즈로 인하여 교회와 성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시는 복된 신문이 되어 지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발행인이 되고 편집인이 되고 기자가 되고 주인이 되고 얼굴이 되고 독자가 되고 중심이 되는 언론, 그런 언론이 되어 지기를 더욱 기대합니다. 누구나 시작할 수 있지만 제대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제대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필체에 힘을 주고 목소리를 높여도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역사가 담겨있지 않다면 모두가 슬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시간으로 모두를 인도하는 참된 선교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김윤기 목사
예장대한총회 총회장

“한국교회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서있어 주길”

지저스타임즈 2주년과 JTN방송 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신문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서 죽어가는 영원들이 살아나고 불의가 사라지고 정의가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영광이 빛을 발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앞으로 지저스타임즈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목회자들에게는 어떻게 유익함을 줄 것인지 선교지에는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를 잘 살펴서 그야말로 모든 분야에 누구에게든지 없어서는 안 될 생명을 주는 언론이 되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스스로에게 더욱 부지런하고 냉철하고, 정직하고, 겸손함으로서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하고 믿을 수 있는 한국교회의 희망으로 또한 세상의 도전 앞에 직면하여 상처받은 교회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으로 서주기를 기대합니다.



오종설 목사
본지 상임이사

“한국 교회에 희망 심는 정론지 되길...”

평소에 한국교회와 언론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랜 경험을 토대로 시작한 지저스타임즈와 2주년 JTN 인터넷방송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타임즈와 인터넷방송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을 많이 나타내고 문서선교로 복음을 전파하며 크게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신문 방송을 통해 다양한 계층에게 많이 복음이 전달되고 종당 받는 신문과 방송 한국교회의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에게 새로운 각성과 희망 줄수 있는 도전과 비전을 줄수있는 신문 방송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국에 많은 신문과 방송이 있지만 지저스타임즈 및 인터넷방송이 앞으로 더욱 창대해 가시기를 미약하지만 기도할것을 약속하며 축하드립니다.



송태섭 목사

“지저스타임즈 2주년과 JTN방송 5주년을 축하합니다”

그동안 한국교계 신문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했던 정기남목사가 지저스타임즈와 인터넷방송을 한국 교계를 더욱 빛낸 좋은 신문과 인터넷방송이 될 것을 믿습니다. 현재 많은 언론지가 있지만 사실은 교계에서 외면당하고있는 신문이 많다는 것을 인지하고 인정받는 신문 ..방송이 되길 바라고 힘이 있는 정론지가 되길 기대합니다. 아직은 미약하지만 창대해져서 교계를 정화시키고 어두운 곳을 밝히고, 그늘진 곳을 찾아 내어 빛이 되어주는 좋은 신문과 인터넷방송이 되기를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김동기 목사
말씀사랑운동본부

“JTN방송 5주년, 지저스타임즈 창간 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교회를 대변하고 문서선교를 위해 출범하여 한국교계를 위해 독자들에게 심도있는 정보를 전하기 위하여 지저스 타임즈가 창간한 것도 모르며 어려운환경속에서도 한국교계를 위하여 불철주야 기도하시며 헌신하는 정기남 목사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큰 축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언론의 직필 정론의 책임은 정치와 나라, 한국교계가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때 바른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최우선가치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비판과 애정어린 충고를 바라며 지저스타임즈와, 인터넷신문방송이 한국교계에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동반자로서 한국교계에 희망의 등불이 되어주시길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한국교계의 어두운 곳을 밝게 비추어 소외되고 그늘진 약자들의 아픔을 아루만지는 참언론의 사명을 다하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김호일 목사
(사)국회사랑 구국기도
중앙협의회 이사장

“할렐루야! 지저스타임즈 창사 2주년 및 JTN방송 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심판 때가 말세인데 이때가 되면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요16:13)고 하였는데, 예수께서 아버지께 부탁해 보내는 진리의 성령을 임은 사명자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를 심상으로 밝혀 천국 길을 예비하도록 한다고 하였으므로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처럼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요4:24)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시기가 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할 진리의 성령에 관한 정확한 정보와 소식을 전해주는 매체가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이런 매체를 통해 모든 성도가 심판에 대비하는데 큰 도움을 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창사 2주년을 맞는 ‘지저스타임즈’와 JTN방송이 사명을 다하는 기록교언론매체의 선봉이 되기를 축원 드립니다.



임동진 목사
열린문교회

“지저스타임즈의 창간두 돌을 맞이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기록 언론사가 있으나 과연 누가 그 언론사를 섬기느냐에 따라 미래가 그려지는 것은 분명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얼마 전 제 39차 기독교 한국루터회 정기총회에서 겸손과 신실함으로 성심껏 루터교단의 이모저모를 기록하시며 촬영하시던 본지의 발행인이자 편집국장으로서 일인이역을 하시는 정기남 발행인을 보면서 언론사 대표로서의 모습과는 달리 오직 성실한 기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던 발행인의 노련한 기자로서의 진면목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지저스타임즈의 과장이 없는 기사, 나아가서 아름다운 언론의 지저스타임즈가 될 것을 기대하며 본지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부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저스타임즈가 되기를 기도하며 다시 한번 지저스타임즈의 창간 2주년을 축하합니다.



김주원 박사
본지상임고문
한국성령운동학회 대표

“지저스타임즈 창간 2주년을 축하합니다”

지저스타임즈하면 생각나는 이미지는 본지의 발행인 정기남 목사님입니다. 양복을 잘 차려입으시고 오른손에는 무거운 카메라를 들고 등뒤에는 카메라와 취재용 도구를 잔뜩 담은 검은색 가방을 짊어지고 이곳 저곳 취재의 현장을 누비는 모습입니다. 다른 젊은 취재기자들처럼 먼 곳에 앉아서 카메라의 렌즈를 돌려서 줌으로 현장을 적당히 담아내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좀더 자세히 사진을 촬영하고 가까이서 현장을 느끼려고 다가가는 정 발행인의 모습이 먼저 생각납니다. 젊은 기자들 틈에서도 지지 않고 열심히 취재하며 촬영까지 하고, 편집까지 손수 하는 열정의 모습이 오늘의 이 신문이 세워지고 발행되게 하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론인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조금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기자의 눈으로 바라본 한국 교계나 어두운 모습들 그리고 빛과 소름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진솔하고 담백하게 실어내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진리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눈으로 그리고 말씀에 근거한 눈으로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담아서 소개하는 지저스타임즈 지면 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들과 글들이 충만하기를 소원해 봅니다. 이제 창간 2주년을 넘어서 계속 되어질 진리의 언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다시 한번 창간 2주년 기념을 축하드립니다.

서울예일신학 (사명자 수시모집)

- 신학과 - 사명(은사)자 학력/나이제한없음
- 연구원 - 신학교 졸업자(남,녀 목사안수희망자)
-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사 2급)
- 학점운영제, 학위과정(학사, 석사,박사)운영

www.syeil.com

전 화 02)2293-0045
H · P 010-7405-9191

장기요양기관(행복의집)
가족처럼 어른신(환자)를 모십니다
(등급판정-1급-3급자환영)

www.1004tv.net

전화 033)541-0687, 010-7405-9191

말씀으로 양육되고 성장하는 대광교회로 오십시오!!

예 배	시 간	장 소	비 고
새벽7교회	매일 새벽 5:30	본 광	성경강화
주일1부예배	주일 오전 7:30	본 광	
주일2부예배	주일 오전 10:00	본 광	열린예배
주일3부예배	주일 오전 11:30	본 광	
주일4부예배	주일 오후 2:00	본 광	특별예배로 들릴 수 있음
주일5부예배	주일 오후 4:00	본 광	청년예배
수요7교회	수요일 오후 9:00	본 광	청년7교회
각구역별예배	각 구역별 지정시간	각구역별 요구구역	마을 다지각주는 연합예배

부서별	시 간	장 소	대 상
유 치 부	주일 오전 11:30	복당 지하 12구역	취학전 아동
유 니 부	주일 오전 9:00	복당 지하 12구역	초등학교 1~3학년
소 녀 부	주일 오전 9:00	별관 구역관	초등학교 4~6학년
중 등 부	주일 오전 11:00	별관 구역관	중학생 및 통영중영
고 등 부	주일 오후 9:30	별관 구역관	고고생 및 통영중영
청 년 2부	주일 오후 4:00	본 광	19~24세 미혼
청 년 1부	주일 오후 4:00	본 광	25세이상 미혼

대한예수교장로회
대 광 교 회
Presbyterian Church

대광교회 담임 엄영수 목사

451-061 안양시 동안구 관왕동 1409-10
TEL. 031-384-6826

면 직 무 효 공 고

2009년 1월 14일자 국민일보에 게재한 한현석 목사 등이
무단공고한이기식 목사 면직 공고전은
불법임이 사실 확인 되었기에 이기식 목사
면직은 원천 무효임을 공고합니다.

☐ 웨신총회 특별위원회 판결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웨신)

160-851 서울 영등포구 신길5동 442-105 (201호)

☎ (02) 838-2606 Fax : (02) 835-2608 Home page : www.웨신총회.net E-mail : weshinch@korea.com

■ 가정예배 ■



소진우 목사
서울예복교회 담임 / 본지 사장

제목 : 진정한 회개

찬양 : 찬송가 186장 성령 : 마태복음 3장8절-12절
사람들은 울면서 자신의 죄를 말하면 그것이 회개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회개는 울면서 자신의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본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 성도라면 그것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곳에 대한 용서의 기도를 했다면 용서와 사랑의 행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때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 합당한 열매까지 맺는 진정한 회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가정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목 : 좋은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찬양 : 찬송가 173장 성령 : 마태복음 7장7절-20절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삶속에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도로서 아름답고 좋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성령은 좋은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 즉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을때 좋은 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가정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좋은 열매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맺는 가정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목 :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찬양 : 찬송가 505장 성령 : 마태복음 7장21절
개신교와 달리 천주교는 선행 일을 하다가 죽은 사람도 천국갈 수 있다고 말하거나 천국과 지옥사이에 연옥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마치 행하는 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행하는 자에 앞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행일을 했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들의 가정이 되어 주님다시 오실 때 천국을 선물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제목: 겸손이 능력이다
찬양 찬송가 347장 성령: 마태복음 8장1절-4절
본문의 말씀을 보면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름도 없는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 절하고 울드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케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간구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문둥병자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왜 허다한 무리중에 이름도 없는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을까? 바로 겸손입니다. 허다한 무리들은 예수님께 소리 소리 질렀을 것입니다. “네 병을 고쳐 주십시오.” 그러나 문둥병자는 그들과 달리 겸손히 간구 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겸손이 능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겸손한 가정을 찾고 계십니다. 겸손의 능력을 소유한 우리들의 가정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목 : 믿음의 겸손이 기적을 이룬다.

찬양 찬송가 347장 성령: 마태복음 8장5절-13절
겸손이란 능력있는 자 만이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진 것 하나 없거나 제대로 할 줄 아는 것 아무것도 없으면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은 겸손한 자가 아니라 무능한 자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은 부와 권력을 가진 능력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히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믿음의 겸손은 기적을 일으키게 합니다. 우리들의 가정마다 믿음의 겸손을 소유하여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목 :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데 너는?

찬양 찬송가 350장 성령: 마태복음 8장23절-27절
예수님은 백부장의 하인과 베드로의 장모 등 지유사역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폭풍우가 몰아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바람과 바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잔잔해 집니다. 이처럼 바람과 바다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부끄러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의 가정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제목 : 예수님을 버린 사람들

찬양 찬송가 93장 성령: 마태복음 8장28절-34절
이웃의 고통을 돕자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경찰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사람이기 때문 일 것입니다.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 역시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예수님이 불필요 했습니다. 즉 그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 예수님을 버렸던 것입니다.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버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가정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목 :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합니다.

찬양 찬송가 340장 성령: 마태복음 9장1절-9절
호랑이는 죽어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렇듯 자신의 이름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야 성공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보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는 장면에서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있다고 소개하는데 그들의 이름은 소개 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믿음의 사람들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몰라줘도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합니다. 사람이 아닌 주님이 기억하시는 우리들의 가정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목 : 믿음이 너를

찬양 찬송가 342장 성령:마태복음 9장20절-22절
헨리 해를 헨리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녀는 고침받기 위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댕니다. 결국 그녀는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됩니다. 12년을 헨리병으로 앓았다는 것은 세 세월을 고통속에 보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22절을 보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즉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서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는 칭찬을 듣는 우리들의 가정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목 : 보시고

찬양 찬송가 424장 성령: 마태복음 9장35절-36절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는데 온 열정을 쏟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께서서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이 고생하며 우리하고 있음을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민망히 여겼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은 우리들을 보시고 계십니다. 고난과 문제를 만났을때 우리를 도와줄 사람은 없지만 우리를 도와줄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를 잊지 않는 우리들의 가정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목 : 하늘의 권능으로

찬양 찬송가 277장 성령: 마태복음 10장1절-4절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선택

하고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 역시 하나님이 부르셨고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하늘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세상의 권능이 아닌 하늘의 권능을 가진 종인입니다. 그럼으로 우리들은 문제와 고난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야 할 것입니다. 하늘의 권능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들의 가정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목 : 지혜와 순결

찬양 찬송가 369장 성령: 마태복음 10장16절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에게 하늘의 권능을 주시고 세상에 파송하면서 여러 가지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 역시 하늘의 권능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종인으로써 뱀처럼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세상의 것에 물들어가 는 것이 아니라 비둘기처럼 순결한 종인으로써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늘의 권능을 소유하고 그리고 지혜와 순결의 열매까지 맺는 우리들의 가정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목 : 합당치 않은 사랑도 있다

찬양 찬송가 511장 성령: 마태복음 10장34절-39절
성도에게 있어 물질과 건강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건강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며 살아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가족들에게도 우리의 마음을 뺏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더 사랑하는 경우가 있는데 본문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더 사랑하는 것은 합당치 않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합당한 사랑은 세상에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마음을 뺏겨 그것들을 더 사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는 우리들의 가정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목 : 그 열정을 회복하라

찬양 찬송가 511장 성령: 마태복음 11장1절
초기 한국교회는 열정하나만을 가지고 세계 역사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열정은 한국교회와 가정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나 점점 그 열정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서 12명의 제자들을 교육시키시고 잠시도 쉬지도 않고 즉시 전도를 하기 위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예수님의 열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열정을 교회와 가정들이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들의 교회와 가정들이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살아갈 때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고 풀어졌던 것들이 묶여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회복하는 교회와 가정이 되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설교자의 임무



서영범 목사

칼빈은 그의 미가서 강해에서 설교자의 임무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그 교훈들이 성경에 일치하는 것인지를 조심하여 점검하여야 합니다. 성경을 강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설교나 교리적인 가르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이 만들어 낸 것을 첨가하면, 그것이 아무리 미세하고 의미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고 거짓된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서들과 복음서들을 통해서 완전하고 철저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설교자는 자기 자신에 속한 것을 하나도 더해서는 안 됩니다.

설교자의 임무란,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 속에 더 깊게 뿌리내리도록 충분한 말씀 강해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모든 강론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우리에게 제시될 때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지 아닌지를 살펴야 합니다.

모든 설교자는 무엇보다도, 자기들이 꾸며 낸 것은 어느 것이든 더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설교자들은, 자기들이 고백하는 것이 자기 자신들로부터 나온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뜰림없는 진리에서 나온 것인지를 확인하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미 3:5-8 (칼빈의 미가서 설교중에서)

오늘날 설교자들의 설교 내용과 행위를 살펴볼 때 과연 오늘의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대한 강해에 얼마나 비중을 두고 설교하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칼빈이 말한 설교자의 임무를 다시한번 상기해 보아야 할 때다.

column



바나나와 모과

명종때 사회를 일으켜 많은 선비들을 모함해 죽인 정승 이기(李爾瞻) 사필(史筆)이 두렵지 않는 "고 한 천구가 충고한 적이 있었다. 이기의 반응은 이러했다. <동국통감(東國通鑑)> 따위를 어떤 사람이 분다툼가. 쓸대로 쓰라지" 한국역사가 무슨 역사냐. 거기에 못되게 쓰였던들 무슨 탈이 있겠느냐 하는 자국의 역사를 깔보고 비하하는 사대주의가 끝수까지 사무채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세조 때 무덤 무도하기로 유명한 정승 홍윤성(洪允成)이 <정원일기>에 자신의 죄악이 날날이 기록돼 있는 것을 보고 말했다. '대국의 장목(綱目)도 사람들이 즐겨 보지 않는데 하물며 <동국통감>임에랴'고 코웃음을 치고 있다. 대국인 명나라의 역사도 잘 보지 않는데 조선 역사쯤이야 하는 역시 자국의 역사를 알보는 사대병의 개연성을 대변해 주고 있다.

사대주의가 극심할수록 자기 나라의 역사를 알보고 깔보게 되는 것은 정한 이치다. 세조 때의 문장 서거정(徐居正)의 <모과송(木瓜頌)>이 생각난다. 꺾도 노랗고 속도 노오란 것이 꺾도 제멋대로고 먹지도 못한다. 하지만 향기만은 빛깔보다 끝보다 뛰어나다. 외풍에 겁이 시들어도 향기는 시들지 않고 코로 맡아진다.' 유약하여 골잘 문드러져버리는 겉과 속이 다른 바나나보다 빈곤과 외난에 시달려 물결이 찌들어졌더라도 겉과 속이 같고 향기가 그윽한 모과이어야 하는 것이다.

피종진 목사 12월 국내 · 외성회 일정

11.30(월)~2(수)	성남 흰돌교회(이재희 목사)	☎(031)758-1234
3(목)~ 5(토)	부천 남부감리교회(이홍중 목사)	☎(032)654-6995
	주최: 부천시소사구기독교연합회(대표회장 이홍은 목사)	
3(목) 오후	서울 소망기도원(원장 연인애 목사)	☎(02)3663-7777
5(토) 오후	서울 성민교회(한홍신 목사)	☎(02)848-4445
7(월) 저녁	서울 새벽교회(전지원 목사)	☎(02)337-9635
8(화) 오후	목회자 성령세미나, 주시랑교회 제156차 해외성회(156th Overseas Assembly)	
9(수)	대만(Taiwan) 대중지역 연합성회(준비위원장 안효성 목사)	
10(목)~12(토)	대만(Taiwan) 도원, 타이베이지역 연합성회	
14(월)~15(화)	일본(JAPAN) 요가끼찌중양교회(신안수 목사)	
16(수)	일본(JAPAN) 가나안교회(한정애 목사)	☎(06)6744-3804
17(목)~18(금)	일본(JAPAN) 오사카 새에텐교회(김수복 목사)	☎(06)6715-3330
21(월)~24(목)	마산 은혜교회(피은혜 목사)	☎ 010-8540-8642
25(금)~26(토)	부산 JSTV 리바이벌센터 (이사장 피종진 목사, 사장 이종문 목사)	☎ 010-9269-7700
27(주일) 오후	서울 참사랑교회(손영란 목사)	☎(02)754-9026
27(주일) 저녁	서울 왕십리교회(오치용 목사)	☎(02)2299-1011 주최 총회 전국남전도회연합회(대회장 황정심 장로)
28(월) 오후	이애라 글로벌 친양신학원 송년의 밤	
28(월)~31(목)	서울 강남생수기도원(원장 윤순옥 목사)	☎(02)2683-4202



대한예수교 장로회 남서울중앙교회 www.nscs.or.kr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86번지
교 회 : (02)3411-9191, FAX : (02)3411-9111
목사관 : 010-5255-7777, FAX : (02)401-7770

대한예수교 장로회

목포만나교회



담임목사 조광표

웨스트민스터목포신학교

Westminster Mokpo Theological Seminary

신학교 학장 : 조광표 박사(D.D.) 연구원 원장 : 모상련 박사(Th.D.)

530-030 전남 목포시 연산동 1236-4번지 ☎ 061)242-1617

사선을 넘어서 16화

하나원서 2개월여 적응 교육 중서
함께 살던 동생들도 만나~

한국에서도 나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하나님의 기적은 멈추지 않았다. 한국에서 첫번째 기적이 일어났다. 정보기관에서 한창 조사받던 어느 날,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다. 중국 베이징에서 헤어졌던 예림이가 비슷한 시간에 나와 같이 조사를 받고 있는게 아닌가.



주승영 선교사(왼쪽)가 2009년 8월16일에서 지내던 서울 문화장 전쟁 생생전시관에서 활약 축하공연 중이고 있다.

우리 둘에게 이보다 더한 충격은 없었다. 예림이를 만나는 순간, 반가움과 기쁨으로 잠시 심장이 맞는 듯했다. 우리 둘은 서로를 끌어안고 한동안 영영 울었다. 그러곤 뜨겁게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렸다. 한순간에 있어본 적 없는 사랑하는 동생 예림이를 만나게 됐다는 사실이 아무래도 믿기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읽고 그렇게 스토리를 엮어주신 것이었다. 내가 베이징역에서 예림이와 헤어진 뒤 한국 영사관을 거쳤던 데 비해, 예림이는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한국으로 들어왔다. 결국 내가 한국에 도착한 며칠 후 예림이도 한국땅을 밟았던 것이다. 우리 사이의 혈육보다 더 진한 정과 사랑을 하나님이 꼭게 보아주신 듯하다.

하나원 생활이 시작됐다. 중국에서 함께 지냈던 동생 예정이, 예림이와 함께 하나원에서 지낸다는 게 꿈만 같았다. 하나원 선생님들은 참으로 우리를 따뜻하게 대해주셨다. 대한민국에 도착한 우리를 반겨주는 그들이 눈물겹게 고마웠다. 북한땅을 떠날 때 상상도 하지 못했던 현실이 참으로 신기했다. 사흘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마고 어린 딸과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영원히 떨어져 살아야 하는 엄마의 아픔이 가슴 한구석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뿐인가. 중국땅 여기저기 팔려다니던 동족들. 무참히 짓밟히고 전기 곤봉에 맞아 쓰러지던 동료들. 중국과 북한의 감옥에서 몸부림치던 영혼들의 신음소리가 귓가에 장장했다. 내가 지금 누리고 받는 축복은 어디에서 왔을까를 생각했다. 정녕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축복해주실 줄 상상이나 했던가. 가족과 생이별의 아픔을 느꼈을 때 죽고만 싶었던 내가 축복의 땅 한국에 와서 누리는 행복은 정녕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가능했다.

하나원 37기. 어쩌다 보니 총무와 회장을 맡아서 하게 됐다. 탈북한 뒤 모진 고생을 겪어온 여인들과 조직생활을 하면서 2개월 이상 평온하게 지낸다는 게 쉽지 않았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진 사람들인지라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지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마찰이 심했다. 역대 총무와 회장들이 예외없이 몇 차례씩 울었다는 말이 실감났다.

나름대로 그들의 마음속 상처를 아무만질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이른 아침이면 나는 조용히 방송실로 내려갔다. 그러곤 기상 시간이 되면 상쾌한 기상 구령과 함께 북한 음악을 들어주었다.

"마치 고향에 온 것 같아요."

"회장 언니, 너무 감사해요."

우리는 한동안 북한 노래조차 들어볼 수 없었다. 어떤 이는 내 손을 부여잡고 영영 울기까지 했다. 그랬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너나 할 것 없이 마음속에 모진 상처들을 갖고 있었다. 주일 아침이면 찬양으로 기상을 시켰다. 그러자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하루를 시작하는 기분이려만 모두 기뻐했다. 하나원에서는 우리끼리 각자 재능대로 가끔 공연을 했다. 한번은 분과장 선생님의 생신이란 걸 알고 깜짝 축하공연을 준비했다. 예정이 아코디언을 메고, 내가 석 줄짜리 바이올린으로 정성껏 공연했다. 선생님은 세상에 태어나 그렇게 멋지고 감동적인 공연은 처음 본대며 어린이아처럼 좋아하셨다.

전화카드도 가끔 중국 지인들에게 전화하고 북한 가족의 소식도 전해들을 수 있었다. 모두 행복해했다. 막연한 가운데서도 저마다 작은 소망을 품기도 했다. 들어보려만 하나원 시절이 한국에 와서 가장 편하고 재미있었던 것 같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롬 15:13)

시루섬 "세상 드라마와 다른 감동과 은혜 선사할 것"

CBS 첫 드라마 <시루섬>의 제작진과 출연진이 세상 드라마와는 차별되는 특별한 감동과 은혜를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선사하겠다는 작품에 대한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문준경 전도사를 주인공으로 한 CBS 창사 55주년 특집드라마 <시루섬> 제작부는 19일 오후 목동 사옥 19층에서 출연진들과 함께 제작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제작보고회에는 주인공 문준경 전도사 역을 맡은 탤런트 이현경 씨를 비롯해 임동진 목사, 고은아 권사, 송재호 장로, 신신애 집사, 김혜은 집사, 김구백 씨 등이 참석했다. 출연진들은 이번 작품이 자극적이고 원색적인 소재 일색인 세상 드라마와는 다른 은혜와 감동을 안겨줄 것이라면서 남다른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번 작품에서 문준경 전도사로 열연한 이현경 씨는 "무엇보다 제가 존경하는 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영광이었다"며 "많은 분들이 이 작품을 보



▲시루섬 제작보고회 참석한 출연진들과 박주복 감독(왼쪽에서 두번째)

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꼭 한번 한사람의 일대기를 연기해 보는 게 꿈이었다는 이씨는 "개인적으로 크고 작게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 배운 것들을 이번 작품하면서 연기를 통해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다"면서 "자신을 버리고 남을 위해 온전히 헌신한 전도사님의 삶을 연기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이와 관련 제작부의 강인석 PD는 "이

씨가 추운 날씨 속에서 설경을 오가며 전도하는 장면이나 바닷물 속에 들어가 자살하는 장면 등 힘든 촬영들을 훌륭히 소화해 냈다"고 전했다. 임동진 목사는 "<시루섬>을 촬영하면서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됐다"며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함께 볼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작품이 더 많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준경 전도사를 통해 극적으로 회심하는 무당 역을 맡은 신신애 집사는 "처음에 무당 역이라고 해서 출연을 거절했지만, 작품을 읽어본 후 많이 울었고 결국 수락하게 됐다"며 "여러분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최고의 작품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시루섬>은 60분물 2부작 드라마로 오는 12월 14일과 15일 밤 10시에 방송된다.

필리핀 팜팡가 빈민촌에
'희망을 쏘다'

필리핀 팜팡가 Tabun 빈민촌에서 '빈민촌에 복음을, 빈민촌에 희망을!'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빈민촌 선교와 '엘리트에게 복음을, 캠퍼스선교에 희망을!'이란 비전을 가지고 캠퍼스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PWMQ(Philippines World Mission Center, 필리핀 월드미션센터)의 이경철선교사와 브릿지(Bridge) 선교 활동을 하는 임성빈선교사가 공동으로 주관한 전도 집회가 지난 11월 22일(주일) 팜팡가 따빈 빈민촌에서 은혜기운에 열렸다. 이번 전도 집회는 빈민촌에 복음으로 희망을 심어 주고 이경철선교사의 4명리 파워포인트교육을 통해 복음의 기초를 닦아 주며 아울러 크리스천 영화 상영을 통해 복음과 감동을 주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2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파워포인트 교육과 기독교 영상물 영화 상영은 그동안 6년에 걸쳐 장비를 놓고 기도해 왔던 빈프로젝트를 전국 직장인 선교회 간사 및 강사로 활동하는 윤관석집사가 최신 모델로 헌틀 해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의 빛을 쏠 수 있었다.

집회 후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간식은 임성빈 선교사를 후원하는 손길을 통하여 공급되어 젓고 전기와 의자는 농구장에 위치한 성도 가정에서 제공해 주었다. 고가 장비들이 많이 동원되고 아간에 집회가 진행되어 많은 위험요소와 안전사고가 염려되었지만 기도를 많이 해 주셔서 안전하게 집회를 잘 마칠 수 있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전도 집회를 하느라 우리의 몸과 마음은 파김치가 되었지만 복음을 통하여 빈민촌에 희망의 빛을 비추며, 눈빛이 변하고 삶이 변해가는 저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미래의 크리스천 엘리트 키우는 일에 무한한 가능성을 엿본다. 본지 이경철선교사 선교홈페이지 www.pwmq.net를 통하여 선교지 자료를 볼 수 있으며 선교 홈페이지 방문해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 준다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전해왔다. 교회건물이 없어 피약별 아래서 비지땀을 흘리며 복음을 전하며 예배를 드리는 따빈 빈민촌에 속히 5000명 1500명의 땅이 집중되어 Tabun 다니엘교회와 다목적 건물이 건축되어 빈민촌선교에 많은 열매가 맺히길 기도하며, 전도 집회를 위해 기도하고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린대며 감사했다.

지저스타임즈 필리핀 이경철선교사



조 정 환 목사

한국교회학교살리기 운동본부장

아래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임종을 1년 앞두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돌맹이를 모두 돈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재물을 물려받을 어린이들에게 좀 더 정성을 기울여 교육을 해야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올바른 자녀교육은 어떠한 재물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 초기의 명신(名臣) 황희 정승의 아들이 한 때 주색에 빠진 적이 있었다. 어느 날 아들이 집에 돌아오자 황희는 예를 갖춰 공손히 맞아들였다. 깜짝 놀란 아들은 "아버님 어이 된 일입니까? 의관 소대를 하시고 저를 이렇게 맞아주시다니요?" 이때 황희는 정중하게 대답했다. "아비 말을 듣지 않고 방탕한 생활을 일삼으니 어찌 내 집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한집 사람이 아닌 나그네가 집을 찾으니 이렇게 예를 갖춰 맞을 수밖에요" 이때 아들은 크게 깨닫고 그 후부터 바른 생활을 했다고 한다.

오늘날 지구촌은 점점 더 글로벌화 되어 가고 있어서 날이 갈수록 영어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더더욱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영어를 더 자유롭게 구사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한 노력에 비하여 그 효과가 미미하여 시간과 돈의 낭비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김근모 목사님이 개발한 이 'Wonderful English'를 통하

여 초등학교생들이나 중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영어 교과서 내용을 자동적으로 암기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새롭게 정리된 마가복음 영어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인 성경까지 영어로 암송할 수 있는 책이 나와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자녀들로 하여금 성경을 공부하게 하고, 성경을 암송 시킴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우뚝 선 민족이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만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암송하여 이렇게 복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자녀들로 하여금 복음의 말씀을 암송하며 자라게 한다면 그 결과는 얼마나 놀라운 것이 되겠습니까?

바라기는 21세기 글로벌시대를 맞이하여 영어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는 이 시대에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

여 하는 'Wonderful English' 영어 성경을 잘 활용해서 신학과 영성을 갖춘 글로벌 리더로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준비시킬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김근모 목사님의 영어 때문에 라는 글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어머님들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았고 아이들이 너무 너무 힘들어 하는 것을 보았고 수많은 사람들의 한숨소리를 들었습니다. 영어엔 보잘 것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영어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과학적인 원리로 누구나 아주 쉽게! 아주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게 교과서로 유창한 영어 최고의 영어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저는 35년 동안 어린이들을 가르쳐 오면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합니다. 교회학교 부흥을 위하여 어린이부흥회, "평생 가는 은혜를 받자"는 어린이은혜캠프와 교사교육을 통하여 한국교회를 섬겨 오던 중 2006년 한국교회학교살리기운동 본부를 창립하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교사세미나 강의 및 어린이부흥회를 인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원더풀 잉글리쉬'라는 책을 쓴 김근모 목사님을 소개받고 교회학교의 부흥에 큰 비전을 갖게 되었고 전국 세미나를 열게 되었습니다.

서울을 시작으로 수원, 대전, 광주, 전주, 부산, 인천 등 7개도시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참석하시면 많은 도전과 교회학교의 부흥의 열망을 느끼게 될 것을 확신하면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http://ksmrc.com)

소진우 목사 2009 - 2010년 성회일정

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교회와 동역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사 소진우 목사

HP : 010-5267-1434

교회 : 02)3391-9676(대)

- 로고스세계선교협의회 부총재
- 열방선교협의회 대표회장
- 극동방송 칼럼리스트
- CBS TV 칼럼리스트
- 지저스타임즈 사장
- 예복교회 담임

2009년 1월

- 3 안양갈멜산기도원(임예제원장)
- 5~8 일산금관교회(주성민목사)
- 12~14 홍산교회(김양섭목사)
- 19~21 갈릴리교회(오덕주목사)
- 26~30 필리핀선교집회

2009년 5월

- 4~7 에스라선교제자훈련센터(이진희원장)
- 10~13 불철축복성회(예복교회)
- 14 안양갈멜산기도원(임예제원장)
- 18~20 미련교회(이봉현목사)
- 21 민족복음화부흥사연수원
- 25~29 선교지방문 (25·부흥사연수원)

2009년 9월

- 7~11 온누리복음화수양회(엄기호목사)
- 14,18 안양갈멜산기도원(임예제원장)
- 21~24 교단총회
- 28~3 추석주간

2010년 1월

- 4~7 도곡산기도원(임예제원장)
- 11~13 마가의다락방(박보영원장)
- 18~20 신광교회(조효원목사)
- 25~27 천동교회(이재정목사)

2009년 2월

- 2~5 해방수양관(백재욱원장)
- 6 안양갈멜산기도원(임예제원장)
- 9~11 옥산성결교회(박병정목사)
- 16~18 칠곡연합성회(김성환목사)
- 23~25 소망교회(조성봉목사)

2009년 6월

- 1~4 인천마가의다락방(박보영목사)
- 7~10 새롬교회(김대수목사)
- 11 한빛교회(임선택목사)
- 15~18 안양갈멜산기도원(임예제원장)
- 22~24 원도순복음교회(정정환목사)
- 26 임마누엘수양관(이수영원장)

2009년 10월

- 1 마가의다락방(박보영원장)
- 5~8 해방수양관(백재욱원장)
- 12~13 정기노회
- 13~15 서북교회(배경택목사)
- 18~20 생명의교회(백규식목사)
- 22 서부시찰연합집회(장대환목사)
- 25~28 예광감리교회(류인덕목사)

2010년 2월

- 1~3 한샘교회(천복수목사)
- 8~10 독산교회(김의태목사)
- 15~19 네팔선교
- 22~24 평택중앙교회(김옥복목사)

2009년 3월

- 2~4 도원교회(유순기목사)
- 2~31 불철축복대집회

2009년 7월

- 3 성소기도원(박정원원장)
- 5~8 새영교회(인영근목사)
- 13~15 신학교세미나.성산교회(김정남)
- 20~22 은현기도원(조은원장)
- 24 안양갈멜산기도원(임예제원장)
- 27~30 임마누엘기도원(김순숙원장)

2009년 11월

- 2~5 안양갈멜산기도원(임예제원장)
- 9~11 임마누엘교회(김경정목사)
- 12 수동기도원(이태희원장)
- 16~20 선교지방문
- 23~25 전국목회자영성대회(유만석목사)
- 30~2 대흥교회(정남기목사)

2009년 4월

- 6~8 목양교회(주화순목사)
- 13~14 정기노회
- 14~16 이룬교회(이재경목사)
- 20~23 남양주시기독교연합성회(김병식회장)
- 27~29 총회원로교육

2009년 8월

- 3~5 마가의다락방(박보영원장)
- 5~7 한일산기도원(이영원원장)
- 10~13 에비디움기도원(최민숙원장)
- 17~20 천문기도원(최정숙)
- 23~25 은현기도원(조은)
- 28 한일산기도원(이영원원장)
- 30~5 십자가특별기도대성회

2009년 12월

- 7~9 신성교회(김병진목사)
- 14~17 호산교회(김영환목사)
- 14~17 해방수양관(백재욱원장)
- 18 임마누엘수양관(이수영원장)
- 20~23 한미동교회(신규태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복교회
YEBOK PRESBYTERIAN CHURCH



섬김의 집 박중현 목사 '복지사역의 목적은 복음전하는 일'

복지사역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나의 목회현장은 사회복지가 아니다

손수 3000명의 농사를 지어가며 17년간 46명의 노인들을 섬기고 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역이 내겐 축복이라며 섬김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 박중현 목사(56), 그는 17년 동안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며 헌신적인 희생과 사랑으로 복지사역에 힘쓰고 있다. 섬김의 집은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세곡리 환돌산 기도원 우측에 소재하고 있다. 아담한 체격에 자상한 인품이 박 원장의 모습에 배어 있다. 복지원에 있는 식구들에게 편안하게 그 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 박 목사, 그의 이미지에서 인자함이 나타난다.

박 목사는 처음 신앙생활을 했던 계기와 복지를 하게 된 동기를 이렇게 말한다. 저는 경기도 화성출신이며, 법안고등학교를 나왔구요, 군 복무를 마치고 웨스트민스터신학을 나와 안산에서 2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복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기도원에 올라와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응답으로 복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고등학교(법안고등학교)다니면서 주님을 영접했는데, 그 계기는 갑자기 종교가 필요했습니다. 처음 찾았던 곳이 모 사찰인데 스님을 만나 불교는 어떤 종교인가 하고 묻자 대답은 '불교는 역사가 오래됐다' 다른 것은 할 말이 없다.는 말에 실망을 느끼고 돌아섰습니다. 얼마간 방황하던 중 누구의 전도를 받은 것도 아닌데, 고등학교 제학시절 결심하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후 주일예배 한번 빠지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섬겨왔습니다.

제가 신학을 하게 된 동기는 군복무를 마친 후 미군부대에 들어가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날 환돌산 기도원에 올라와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도원에 봉사할 일군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자원하여 일을 하는 가운데 기도원에서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환돌산 기도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원장이 다른 분이었습니다. 윤석전 목사가 아십니다. 그리고 환돌산 기도원에서 기도 중에 신학교를 다니게 되었고, 당시(라보도 신학교), 지금은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입니다. 신학교에서 신앙생활에 큰 도움과 성장을 했으며, 많은 것을 배웠고 평생 잊을 수 없는 모교입니다.

복지관을 언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제가 기도원에 있을 때 복지에 관해 기도로 준비하면서 이러한 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를 볼 때 크고 작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가? 하지만 복지시설이 없습니다. 그때 결심한 것이 복지관 건립이었습니다. 복지관 건립을 목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환돌산 기도원에 윤석전 목사가 오기 전, 원장님이 좋은 뜻을 가졌다면서 이곳 땅 500평을 기증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섬김의 집 복지원 이름도 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부부는 팔을 걷어 올리고 콧노래를 불러가며 허허벌판에 천막을 치고 1년 반을 아내와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필요한 땅을 더 주셨습니다.

다. 천막을 치우고 30평 성전을 손수 붉은 벽돌을 쌓았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정말 힘들었습니다. 30평 성전을 짓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섬김의 집 간판도 달았습니다.저의 시설에는 접해를 가진 노인들, 정신이상자, 고령에다 걸지 못한 분들, 중증 환자 등이계십니다. 현재 46명을 모시고 있습니다. 제일 어렵고 힘든 것은 접해를 가지신 분들 중에는 자신의 인분을 먹고, 벽 이곳 저곳에 짙을 합니다. 뽕글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그 일이 혈오스럽고 괴롭다면 어찌 이 사역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내와 내게 선물이요 맡겨주신 사역입니다. 우린 이 사역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께 부름을 입은 사역자이기에 가능합니다. 지금도 우리 부부는 기쁨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박 목사는 17년간의 보람은 "노인들의 변화요, 가족들을 전도하는 모습"이라고 한다. 섬김의 집 운영은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안 됩니다. 신앙적으로 우리 시설에 계시는 분들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신앙이 없던 분들이 우리 시설에 들어와 예배를 통해 믿음이 들어가는데, 자신의 아들 떠느리 가족들이 찾아오면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을 너희도 믿어야 한다. 돌아 가면 반드시 교회에 나가라. 나는 이 시설에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원장으로서 그분들의 입을 통해 가족들에게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들을 때, 너무도 감사해서 눈물이 나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사실 제가 다른 곳에 나가 전도한다는 것은 쉬운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 어른들이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교회 나가 주님을 영접하라는 모습을 보면 정말 보람을 느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란 말

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설에는 전국에서 구전을 통해 찾아옵니다.

복지원의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현재 보건복지 사회복지로 부터 지원받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로 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마음대로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자유롭게 하기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가입을 하지 않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 사회복지 등에 가입을 하게 되면 신앙의 자유가 없습니다.

이것해라 저것해라 정부의 간섭이 많습니다. 복음전하는 사역을 못합니다. 사회복지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 시설은 정부의 복지부 간섭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이든 불신앙자이든 시설에 들어온 자들의 자유의사를 따라야 하기에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면 처벌이 따릅니다. 사실 우리 시설은 비인가시설이기에 그동안의 강력한 제지를 받으면서 저들과 많이 싸웠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자원없이 복지운영에 있어 어떻게 무엇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는 간섭을 받지 않고 복음 전하는데 자유롭고 시설의 운영도 지금까지 46명의 식구들을 한 끼도 거르지 않고 다 먹이고 입히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설은 걱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의에서 많은 분들이 공급해 합니다. 정부 사회복지로부터 한 톨도 지원받지 못하면서 어떻게 저 많은 식구들을 먹이며 그중에는 제학중인 중학생도 있는데, 하고 묻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어떤 계획도 없이 그냥 그냥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사회복지 시설을 하고 가입을 하면 정부에 도우는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정부 도움보다 못하겠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자유롭게 복음 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복지원 운영은 조직도 계획도 없이 오직 예배 중심에 있습니다. 3,000평의 농지를 임대 해 농사를 손수 지어가며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어떤 후원의 조직도 없습니다. 물론 무언가 복지시설이란 점에서 중

학생 한 아이의 위탁교육에 정부의 혜택도 없이 학교를 보내고 있다.

사회복지법인의 혜택을 받는 시설들은 운영예산을 계획하고 있지만 저의 시설에는 무계획이며 예산도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설에 있는 분들의 건강관리는 새벽예배를 통해 일일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예배가 중요합니다. 저는 분명히 말해서 사회복지는 가입도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사회복지법을 변경해 가면서 압박을 가해 왔지만, 보건복지 사회복지법으로는 저의 시설을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우리 시설에서 법을 위반한 것이 무엇이나? 있다면 말하라며 당당하게 말합니다.

사회복지의 목적과 기독교의 목적은 전혀 다릅니다. 하는 일이 비슷할지라도 목적은 다릅니다. 영리목적으로 혜택을 위해서 싸우지 않습니다. 저는 사회복지가 아니고 기독교 정신에서 하는 복지는 목회 한 부분임을 분명히 말합니다. 비신고시설이란 이유 때문에 이곳을 도우려는 자원봉사자를 비롯해서 도움을 주려는 모든 기부금까지도, 본인들이 하고 싶어도 방해 받고 있기에 기부금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건복지부에서 아무리 힘들게 할지라도 저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입만 바라보고 자기 때문에 요동치 않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도와주는 것보다 하나님의 도움이 더 크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제가 시설을 운영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많이 썼더라면 빌당을 사고 남았을 것입니다. 복지를 위해 사회복지법인으로 등록하고 모금운동을 펼치고 영리를 위하여 머리를 써서 시설을 운영했다면 큰돈을 모았을 것이며 빌당도 지았을 것입니다.

사실 앞으로 큰 문제인 것은 큰 교회의 목사는 걱정이 없는데 개척교회의 목회자들이 문제입니다. 나이는 들고 막상 갈 곳은 없고, 사모까지도 노후 대책도 없습니다. 저는 그들을 위하여 시설을 확장해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섬김의 집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셨던 그대로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방법 안에서 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섬김의 집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의 시설은 4년여 기간에 지어진 것입니다. 또한 도베도 손수 2개월이 걸렸습니다. 연건평 300평에 교회가 30평, 시설이 약 250여 평이 됩니다.

목사님을 가장 가까이서 내조하고 계신 임정희 사모(51)님은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남편 목사가 자랑스럽다고 말한다. 목사님이 이 일을 기쁜 마음으로 하시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동반사역에 내조하면서 이 일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감사할 뿐이라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다는 자체가 축복이라고 말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섬김의 집



원장 박중현 목사

섬김의 집 복지원은 사회복지가 아닌 생명을 살리는 영혼구원을 목적으로 여러분을 편안하게 모시는 복지 시설이며, 30여 평의 교회와 250여 평의 복지시설에 현재 90세가 넘는 할아버지를 비롯 46명의 원생을 한 가족처럼 모시고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세곡리 242
상담문의 전화 / 031)227-5244 팩스/031)227-5243
대표 / 019-211-5244
E-mail pe5244@hanmail.net
후원 : 207170-52-098969 <농협>

소강석목사 '생명나무 목회 컨퍼런스' 대성황

새에덴교회(담임 소강석 목사)는 지난 16~18일 경기도 용인시 죽전동 소재 본 교회당에서 '생명나무 목회 컨퍼런스'를 열어 대성황을 이루었다.

지난해 중국으로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을 초청해 성공리에 마친 경향을 가진 바 있는 가운데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맨손, 맨발에 시작해 용인 죽전 지역에 1만여 명의 성전을 건축하고 2만 5천여 명의 성도로 부흥을 이룬 새에덴교회 소강석 목사가 강사로 나서 목회 전략과 비전을 공개했다.

2천여 명의 목회자와 사모가 참여한 행사에 강사로 나선 소강석 목사가 그동안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양육했던 내용을 집약한 생명나무교회 전 과정을 총 6강좌로 소개하고, 특강을 통하여 소목사의 '획기적 부흥을 일으키는 전도전략'과 '전통과 감성이 조화를 이룬 클래식 예배', '교회문제와 갈등해결을 위한 감동 리더쉽'을 비롯 양병갑 목사와 이정희 집사의 '교회론과 정작중심의 평신도 양육 사역', 이종민 목사의 '중대형교회를 위한 교구행정과 부목사 관리' 등에 대해 강의

획기적 부흥을 일으키는 전도전략 전통과 감성이 조화를 이룬 클래식 예배



가 집중돼 자 많은 도전을 받고 돌아갔다.

주 강사인 소목사는 선악과와 생명나무 열매를 대비하면서 "한국교회가 성장 발전해 한국 사회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불순종과 악한 판단의 선악과를 추구하지 말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바라보며 굳건히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명나무교회는 새에덴교회의 크고 작은 직분을 맡은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수강해야 하는 필수 코스다. 이번 행사에 새에덴교회 부교역자들이 강사로 나섰다. 외부 강사는 수지영락교회 배성식 목사가 '개척교회의 효과적인 부흥 전략'과 '성장한계를 극복하는 법'에 대하여 강의를 했다. 배 목사는 "개척교회에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문제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외부로 눈을 돌려 각각 받은 달란트를 살려 전도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효녀 전도사가 인도한 교회학교 특별 프로그램으로 '새에덴 다음세대 프로젝트'를 소개, 웨마키즈 스쿨과 웨마비전 스쿨, 웨마 리더십 스쿨이 진행해 관심을 모았다.

마치날 소강석 목사는 "이번 컨퍼런스가 큰 도전과 꿈이 되어서 새로운 목회의 희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성령 충만한 가슴속에 큰 부흥의 열쇠를 품고 돌아가 지역사회를 섬기며 성시화 할 수 있는 목회자들이 되기를 바란다"며 당부했다.

마르투스 부흥선교협의회 창립감사예배

초대 대표회장 고승곤 목사를 만장일치 추대



마르투스(Witness)부흥선교협의회 창립감사예배가 11월 13일 서울 송파구 장지동 바울교회에서 동행의회를 인준하고 창립감사예배를 드렸다.

이호범 목사 사회, 정근수 목사 기도, 신영희 강도사가 성경을 봉독하고, 이정아 사모, 조희운 권사 등이 축사를 하였으며, 고승곤 목사(바울교회)가 "성령의 증인이 되라"는 제자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한석전 전도사가 봉헌전송을, 이성숙 목사가 봉헌기도를 드렸다.

고승곤 목사는 이날 마르투스 부흥선교협의회 설립취지를 설명하고 현

재 48명의 회원들이 뜻을 같이 하고 있으며, 부흥사회의 모든 조직은 서면을 통한 발송을 약속했다.

이날 특별기도에 유영미 전도사는 마르투스 대표회장 인선을 위한 지혜를 구하고, 김영애 강도사는 회원의 신앙 영성

회복을 위하여, 강연자 목사는 한국교회의 성장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김인준 선교사는 전 세계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했다. 또한 오기열 목사가 권면, 김창원 목사가 축사를 전했으며, 홍혜선 목사가 광고를, 박진숙 목사 축도로 마쳤다.

이어 총회를 개최하고 (가칭) 마르투스 부흥선교협의회 명칭을 인준하고, 대표회장으로 고승곤 목사를 만장일치 박수로 추대했다. 초대 대표회장을 맡은 고승곤 목사는 2010년 한 해 동안 동행의회의 부흥성회 일정 계획안을 토의하고 마쳤다.

성경적인 아바드 리더 시스템 교육 전국 교회를 강타했다!

아바드 리더 시스템 교육원장인 이경은 목사는 2009년 아바드 리더 시스템 전국 순회 세미나를 지난 11월 5일 대구경북 지역(샘깊은교회 담임 손석원 목사)을 시작으로 각 지역마다 개최하여 참석 목회자들에게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다.

11월 6일 전주 지역(산성교회 담임 백만종 목사), 12월 인천 지역(순복음인천초대교회 담임 김영구 목사), 13일 목포 지역(해동교회 담임 김병문 목사), 17일 경기 문산, 파주, 김포, 고양, 일산 연합 지역(빛과 소금교회 담임 임대일 목사), 19일 순천(여수 지역(문수제일교회 담임 김봉구 목사), 20일 울산 지역(선양교회 담임 조기미 목사)에서 개최되기까지, 가는 곳마다 많은 목회자, 사모들이 참석하여 교회마다 가득 차고 넘치는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다.

또한 23일~25일 서울 지역-아바드 리더 시스템 무료세미나(순복음서울진주초대교회 1644-9135), 26일 경기연합 지역(정북 은혜와사랑교회 담임 강영주 목사), 27일 충청북 지역(원안순복음샘터교회 담임 윤복수 목사), 12월 1일 대구경북 지역(명성교회 담임 이종식 목사)의 영를 세미나 요청으로 다시 세미나를 개최하고, 12월 2일 광주 지역(광주초대교회 담임 신현균 목사)에서도 개최되어 불같은 역사가 일어났다. 낮에

는 2시와 4시 목회자 대상으로 강의와 아바드 리더 시스템 적용 성공사례를 발표했으며, 저녁 8시에는 평신도도 함께 참석하여 자녀를 성공시키는 세미나로 목회자들에게는 비전과 도전을 주며, 평신도들에게는 자녀를 성공시키는 비법을 알게 함으로 각 지역마다 큰 반향을 일으켰다.

특히 2010년 목회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아바드 리더 컨퍼런스 & 1차 세미나'를 12월 14일(월) 오후 2시부터 16일(수)까지 목회자 및 모든 평신도를 대상으로 '이만한 장수가 없었더라.'는 주제로 순복음서울진주초대교회(T.1644-9135, www.fgdc.org)에서 개최 예정으로 있어 큰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다.

아바드 리더 시스템은 성도를 용사로 세우는 시스템, 가정의 일익을 교회로 부흥시키는 시스템을 표방한다. 용사의 배경은 사무엘상 22장 2절에 나오는 다윗에게 모인 무리는 오히려 지축이었지만 다윗과 함께 하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돌아보지 않고 주의 종의 요구대로 행하는 용사(대상 11:15-19)가 되는 모습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경은 목사는 "용사는 섬기는 자입니다. 용사가 교회를 섬기면 자연히 교회는 부흥하게 되고 주의 종은 힘을 있게 되며 성도는 성령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용사가 가정을 섬기면 남편이 세워지고 아내가 힘이 있게 되며 자녀는 성공의 길로 달려가게 됩니다."라고 힘주어 말한다.

"어느 교회든 잘 돼야 합니다. 어느 주

의 종이든 잘 돼야 합니다. 어느 성도님이든 잘 돼야 합니다.

대단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이경은 목사의 고백은 아바드 리더 시스템을 적용하여 전 세계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에게 신명기 28장의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아바드 리더 시스템은 '섬기다'라는 뜻을 지닌 히브리어 '아바드'를 바탕으로 하여 만들어졌으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함으로써 성도를 용사로 세우는 것에 목적을 둔 시스템이다.

본 시스템은 전도, 아바드 새가족반, 아바드 성장반, 아바드 핵심반, 아바드 청지기반, 아바드 비전반, 아바드 용사반, 아바드 사역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별한 각 과정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가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신앙의 단계적 성장을 발견, 그 단계들을 반영함으로 성도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교회를 위하고 주의 종을 위하는 용사로 세우는 가장 이상적이고, 성경적인 교육 시스템이다.

교회를 위하고 주의 종을 위하는 용사를 세우는 시스템~!



용문산기도원 나운몽 목사 소천

성령운동과 구국기도운동, 문서선교에 일평생을 바쳐온 아실 나운몽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11월 26일 새벽 5시 20분 소천했다. 향년 96세 아실 나운몽 목사는 1914년 1월 7일 광복 박헌 명종리 출생으로 1942년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영접한 후 1946년 수표고 감리교회에서 장로장립을 받았다. 1947년 4월 5일 용문산에 애향숙을 설립해 기도과 성령운동의 일꾼들을 길러내기 시작했으며 51년부터 본격적으로 성령운동을 전개해 전국를 돌면서 강연회 및 부흥회를 통해 성령운동을 일으키는 등 한국기독교 성령운동의 선구자로 성령운동의 바람을 일으켰다.

특히 1950년대에는 한국기독교계 최초의 기도원인 용문산기도원(어려운 죄인들만 한 사람의 사랑 안에서 용서할 받지 못할 자 없다는 뜻에 구국제단을 쌓고 지금까지 1년 365일 24시간, 46년간 쉬지 않고 지금까지 구국기도를 계속하고 있다. 문서선교에 앞장서온 나 목사는 1945년 이승만 박사로부터 받은 휘호 농민성보월간잡지를 발간하기도 했으며 그 후 기독교계의 유일한 신문인 기독교 공보(현 에정통합기관지 기독교공보)를 운영하

기도 했다. 또한 신앙세계 창간과 함께 1960년에는 복음신문의 전신인 복음일보(기독교계 최초의 일간신문)를 발간해 본격적인 문서선교에 앞장서왔으며 지난 2009년 10월 창간 49주년 때까지 펜을 놓지 않을 정도로 1백여 권의 저서와 신문을 발간하는 등 문서선교에 앞장서왔다.

1950년대에는 한국기독교계 최초의 기도원인 용문산기도원을 개원해 기도원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등 한국기독교 기도원 운동의 효시를 이루기도 했으며 이에 앞서 1947년에는 애향숙을 설립해 기도과 성령운동의 일꾼들을 배출한 것은 물론 고등공민학교와 교회를 개척해 교육과 복음증거에 큰 기여를 하였다.

1979년 3월 29일 미국 국제 오순절 성결회와의 조인식을 통해 대한 오순절 성결회를 창립해 성령운동의 확산을 해와까지 넓혔다. 한국기독교계 성령운동과 구국기도운동, 문서선교 사업에 선구자적 역할을 한 아실 나운몽 목사의 장례예배는 애향숙장으로 오는 30일(월) 오전 11시 용문산기도원(김천시 어모면 능지리 산 274)에서 거행된다. 아실 나운몽 목사는 사모 김선혜 권사 사이에 서영·혜영·도영·일영·이영 등 아들 5형제가 있다.

교승곤 목사 치유축복대성회

주제 |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대하 20:12절)

강사



강사 고승곤 목사

원장



원장 김수아 목사

약력

- 바울교회 담임
- "하나님의 손안에" - 저자
- "하나님 나라의 비밀" - 저자
- 국제연합신학연구원 교수
- 다바르 성경연구원 원장
- 마르투스(Witness) 부흥선교협의회 대표회장

약력

- 실로암성령치유센터 원장

서울시 송파구 가락2동 141-2번지 쌍용아파트 1차 205동 후문 맞은편

☎ 02) 408-9030, 011-9082-9030

마르투스부흥선교협의회 조직

수석상임회장	수석상임회장	상임회장	상임회장	상임회장	상임회장	상임회장	대표회장	공동회장	공동회장	공동회장	강사단장	여강사단장	사무총장	서기	회계	기획단장	통원단장
김형원 목사	이종식 목사	고귀한 목사	박모세 목사	서태섭 목사	장기남 목사	한사라 목사	고승곤 목사	김수아 목사	이성숙 목사	최보라 목사	이완호 목사	홍혜선 목사	김인준 선교사	강연자 목사	신영희 강도사	박옥현 전도사	양해관 전도사
섭의단장	선교단장	운영단장	협력단장	언론단장	예술단장	예능단장	음향단장	찬양단장	찬양위원	찬양위원	찬양위원	찬양위원	찬양위원	선교위원	선교위원	선교위원	선교위원
권종자 전도사	유영미 전도사	정영희 강도사	진준자 강도사	이종렬 강도사	임덕희 목사	홍현숙 선교사	조재성 사역자	정경희 전도사	김한미 목사	이은순 집사	이정아 사모	임주영 전도사	한석전 전도사	김영애 강도사	김성실 전도사	오지영 전도사	

일시 | 2009년 12월 7일(월/밤) ~ 10일(목/밤) 낮2시, 저녁7시30분

장소 | 실로암성령치유센터

기쁜소식 → 문제해결

단 한 번의 참석이

당신의 생애를 변화시킵니다.

대표회장 고승곤 목사 성회 일정
일시 2009년 1월 4일(월/사) ~ 7일(목/일)
날 11시, 저녁 8시 (경기/도 성남시 용문산 오순절성령사)
장소 실로암교회 (당일 조별별 주일)
☎ 031-47-0591 / 011-92-0553 / 010-4499-5556

부흥성회 문의
010-8019-8008